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즉각 깨닫는 열쇠

무료 증정 견본서

CONTENTS

차례

소개말	4
칭하이 무상사 약력	9
이 세상 너머의 신비	12
칭하이 무상사/ 1992. 6. 26. 뉴욕 UN 강연	
입문: 관음법문	58
5계	60
비건 채식의 이로움	62
건강과 영양	63
생태계와 환경	67
세계 기아	68
동물의 고통	69
성인들과 그 밖의 사람들	69
질의응답	72
비건 채식: 전세계의 둘 부족 위기에 대한 최상의 방안	85
비건 채식인을 위한 희소식	87
전세계 비건 채식 식당	88
간행물 안내	98
전세계 연락처	110

무료 견본책자 다운로드

즉각 깨닫는 열쇠 (74개 언어 이상)

<http://sb.godsdirectcontact.net/> (포모사)

<http://www.Godsdirectcontact.org/sample/> (미국)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download/index.htm> (오스트리아)

<http://www.Godsdirectcontact.us/com/sb/>

도움말

영적 스승이자 예술을 창작하시는 청하이 무상사는 내재된 영성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표현 방식을 선호하십니다. 이 때문에 스승님은 베트남을 ‘어울락’으로, 대만은 ‘포모사’로 부르십니다. ‘어울락’은 베트남의 옛 이름으로서 행복을 뜻하며, ‘포모사’는 섬나라와 그 국민의 아름다움을 보다 완벽하게 반영하는 이름입니다. 스승님은 이러한 이름을 쓰면 그 나라와 국민의 영성이 고양되고 복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다.

“나는 불교나 기독교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진리에 속해 있으며 진리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불교나 기독교, 도교 또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 무엇이라 불러도 좋습니다. 나는 모두 환영합니다!”

~칭하이 무상사~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얻음으로써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완전한 민족과 지상 및 천상의 갈망을 모두 실현하는 것은 신의 왕국–우리의 영원한 조화와 영원한 지혜, 그리고 전지전능한 힘의 내적인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얻지 않고서는, 아무리 많은 부와 권력과 지위를 누릴지라도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칭하이 무상사~

“우리의 가르침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건 성심껏 하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며 매일 명상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과 세상에 봉사하기 위해 더 많은 지식과 지혜와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 자신의 선^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육신에 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부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칭하이 무상사~

소개말

모든 시대를 통틀어 단 몇 분만이 인류의 영적 고양이라는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인류를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방문객 가운데 한 분이었으며, 석가모니 부처와 마호메트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세 분은 잘 알려진 분들이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다른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류를 공개적으로 가르쳐 다소 알려진 분도 있고, 전혀 알려지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절마다 다른 시대에, 다른 나라에서,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분들은 스승·아바타(化身)·선지식·구세주·메시아·성모聖母·메신저·구루·살아 있는 성인 등과 같은 이름으로 불려 왔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깨달음·구원·자아실현·해탈·깨우침을 주려고 왔습니다. 이 말들은 서로 다른 것처럼 들리지만, 본질은 모두 같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성인들과 같은 영적 위대함과 도덕적 순결성 그리고 인류를 고양할 힘을 가지고 똑같은 신의 근원으로부터 온 이 방문객들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칭하이 무상사(The Supreme Master Ching Hai)입니다.

칭하이 스승님은 살아 있는 성인으로 널리 알려진 아주 보기 드문 분입니다. 스승님은 여성입니다. 그러나 불교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이 여자는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근거 없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스승

님은 동양인입니다. 그리고 많은 서구인들은 구세주가 자신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스승님을 알게 되어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우리는 스승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를 알려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신실함과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하며 여러분의 시간과 주의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생계비를 벌고 물질적 욕구를 채우는 데 거의 모든 시간을 써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 일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나면 정치나 스포츠, TV나 최신 스캔들 같은 것에 신경을 씁니다. 내면으로 직접 신과 만나는 사랑의 힘을 체험한 우리는 이보다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좋은 소식이 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삶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이 숨쉬면 닿을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열의가 지나쳐서 여러분의 이성적인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보고 알면서도 가만히 있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칭하이 무상사의 제자이며 관음법문의 동료수행자인 우리는, 우리 스승님을 통하건 다른 스승을 통하건, 여러분이 직접 신성神性의 실현을 체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소개책자를 드립니다.

칭하이 스승님은 우리에게 명상 수행과 내면으로의 묵상,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생에서 행복하고

싶다면, 우리 내면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설명하십니다. 스승님은 깨달음이란 비밀스러운 것도, 도달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며, 사회를 떠나 은거하는 사람만이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스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우리 내면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잊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왜 우리가 진리를 찾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명상 수행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신이나 부처 또는 우주에서 최고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누군가를 왜 믿어야 하는지를 다시 일깨워 줘야 합니다.” 스승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당신을 따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스승님은 자신의 깨달음을 본보기로 삼아 다른 사람들도 궁극적인 해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뿐입니다.

이 책자는 칭하이 무상사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린 칭하이 스승님의 강연·해설·인용 구절들은 스승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녹음하여 기록하고, 때로는 다른 나라 말로 출판하기 위해 번역해서 편집한 것임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칭하이 스승님의 비디오테이프나 오디오테이프를 보고 듣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이런 글보다는 훨씬 더 생생하게 스승님의 존재를 체험할 것입니다. 물론 가장 완전한 체험은 스승님을 직접 뵙는 것입니다.

칭하이 스승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머니이시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이시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애인이시기도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다. 스승님은 이곳에 베풀기 위해 오셨지, 받으려 오신 게 아닙니다. 스승님은 당신의 가르침과 도움 그리고 입문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으십니다. 스승님이 가져가시는 것은 단지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아픔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를 간절히 원할 때에만 그렇습니다!

“스승은 여러분이 스승이 되도록 하는 열쇠를 가진 분이며, 여러분 역시 스승이고 신과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주는 분입니다. 그것이 전부이며 스승의 유일한 역할입니다.”

~칭하이 무상사~

“우리 수행의 길은 종교가 아닙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가톨릭이나 불교 또는 다른 종교로 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여러분이 자신을 아는 방법, 여러분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아는 방법,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기억하는 방법, 우주의 비밀을 깨닫는 방법, 왜 이다지도 많은 불행이 존재하는지를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죽은 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아는 방법을 알려 줄 뿐입니다.”

~칭하이 무상사~

“우리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신과 분리되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거나 전화가 계속 울리고 있다든지 여러분이 요리하거나 다른 사람과 잡담하느라 바쁘다면 아무도 여러분과 연락할 수 없습니다. 신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은 매일 우리에게 전화하지만 우리는 그와 통화할 시간이 없다고 계속 전화를 끊고 있습니다.”

~칭하이 무상사~

칭하이 무상사 약력

칭하이 무상사는 어울락의 유복한 집안에서 덕망 높은 한의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가톨릭 신자로서 성장했지만, 할머니에게서 불경과 예불에 대해 배우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스승님은 철학과 종교에 큰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남다른 자비심을 지녔습니다.

18세가 되던 해, 칭하이 스승님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으며, 나중에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생활했습니다. 스승님은 독일의 적십자사에서 일했고 독일인 의사와 결혼했습니다. 2년간의 행복한 결혼 생활 후 깨달음을 얻고자 남편의 동의를 얻어 집을 떠난 스승님은 어릴 적부터 꿈꿔 왔던 이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스승님은 만날 수 있는 모든 스승과 교사들의 지도 속에 많은 명상법과 영적 수련을 거쳤습니다. 그녀는 한 사람의 힘으로는 고통 받는 인류를 돋는 것이 미약하기 짝이 없음을 몸소 체험하고, 사람들을 돋는 가장 좋은 길은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이 목적만을 위해 세계 도처를 다니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완벽한 법문을 찾던 스승님은 수년간의 시험과 시련 끝에 마침내

관음법문을 발견하고 히말라야에서 신성한 전수를 받았습니다. 칭하이 스승님은 그후 히말라야에서 한동안 은거하며 수행에 정진한 후 완벽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 몇 년 동안 칭하이 스승님은 불교 비구니로서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게 살았습니다. 천성적으로 부끄러움이 많은 스승님은 보물을 숨겨 두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께 가르침과 입문을 구했습니다. 포모사와 미국의 초기 제자들의 끊임없는 요청과 노력으로 인해 스승님은 세계 순회강연을 하게 되었으며 신실한 수십 만 명의 구도자들을 입문시켰습니다.

오늘날 전세계 여러 종파의 많은 구도자들이 스승님의 무상 지혜를 구하고자 물밀듯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 관음법문이 최고의 법문임을 입증한 스승님은 관음법문을 배우고 수행하고자 하는 신실한 구도자들을 기꺼이 입문시키고 영적으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번뇌로 가득한데
 나만은 당신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세상 안에 당신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면
 모든 번뇌가 사라질 텐데.
 그러나 세상이 번뇌로 가득 차 있어
 당신의 자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당신의 아름다운 눈길 살 수만 있다면
 우주의 해와 달과 별을 다 팔겠습니다.
 오, 무량광 스승이여!
 바라옵건대, 자비를 베푸시어
 간절한 이 마음에 몇 줄기 빛이라도 내려 주소서.

사람들은 한밤중에 밖으로 나가
 세상의 빛과 음악에 취해 노래하고 춤추는데
 오직 나만이 고요히 앉아
 내면의 선율과 광휘를 즐기고 있습니다.

오, 주여, 당신의 영광을 알고부터
 난 이 세상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은총 속에 잠기게 하소서,
 영원토록!
 아멘!

칭하이 무상사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이 세상 너머의 신비

칭하이 무상사/ 1992. 6. 26. 뉴욕 UN 강연 (DVD 260)

유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우리가 가진 것과 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한 가진 것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처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세계 난민과 전쟁 희생자, 군인, 여러 나라 정부와 유엔 지도자들 모두 원하는 일을 이루고 더불어 평화롭게 살 수 있기를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잠시 기도해 주십시오.

“구하면 얻을 것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 강연의 주제는 ‘이 세상 너머’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다 아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 세상 너머에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신 여러분 모두 관심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전에 우리 동수가 말한 기적 같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믿을 수 없는 어떤 환상도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며, 매우 중요합니다.

각 종교 경전에서는 일곱 개의 천국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의식의 차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면에 신의 왕국, 불성佛性이 있다며 이런 것들이 이 세상 너머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경전에 약속된 이런 곳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나는 많지 않다고만 했지 한 사람도 없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인구에 비하면 내면에 있는 신의 왕국, 혹은 이를바 ‘이 세상 너머’에 도달하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미국에서는 아마 이 세상 너머를 묘사한 책들을 읽을 기회가 많을 겁니다. 미국인들이 만든 일부 영화들이 모두 허구만은 아니며, 일본인들이 만든 영화도 허구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세상 너머에 가 보았거나 신의 왕국을 얼핏 보고 온 사람들이 쓴 책들을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신의 왕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린 이미 이 세상에서 할 일도 많고 직장도 있으며 안전한 집과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신의 왕국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의 왕국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의 왕국이라고 하면 너무 종교적으로 들리겠지만, 사실 이것은 높은 의식 차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옛사람들은 이것을 천국이라고 불렀지만 학술 용어로 말하자면 서로 다른 차원의 높은 지식·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방법을 안다면 우리는 그곳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삼매에 들게 하는 최신 발명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기계를 사용해 봤습니까? 미국에서 팔고 있는데 원하는 경지에 따라 400불에서 700불까지 합니다. 이 상품은 명상하기는 쉽고 바로 삼매에 들고 싶어하는 게으른 사람들을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 그 기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기계는 여러분을 정신적으로 이완시키며 지능 지수를 높여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식과 지혜가 높아져 스스로 대단하게 느껴지지요. 그리고 이 기계는 외부의 특정 음악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어폰이 필요하며, 전류의 자극으로 어떤 빛을 볼 수 있게 하므로 눈가리개도 필요합니다. 이어폰과 눈가리개만 있으면 삼매에 들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좋은데 400불이니 아주 싼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삼매는 그보다 훨씬 더 십니다. 돈도 전혀 안 들고 영구적입니다. 그리고 전전지나 전기로 충전할 필요도 없고 플러그를 꽂았다 뺐다 할 필요도 없으며, 기계가 고장나 고치려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인공적인 빛과 인공적인 음악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이완시키고 지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신문에서 읽은 것이지 내가 직접 그 기계를 사용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기계는 인기가 아주 좋아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이런 인조품조차도 기분을 이완시키고 지능을 높일 수 있다는데 진짜 빛과 소리라면 우리의 지혜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겠습니까? 진품은 이 세상 너머에 있지만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이 내면에 있는 천상의 음악, 천상의 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음악과 빛의 세기에 따라 우리는 이 세상 너머로 갈 수 있으며, 보다 깊은 이해력의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 법칙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로켓을 중력 밖으로 쏘아 올리려면 막대한 발진력이 있어야 하며,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갈 때는 빛이 생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너머로 빨리 간다면 빛도 낼 수 있고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소리는 일종의 진동력으로서 우리를 더 높은 경지로 옮겨 주지만 아무 소음도 없고 문제도 없으며 돈도 들지 않고 ‘체험자’에게 불쾌감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너머로 가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 너머는 이 세상보다 어떤 것이 좋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거나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말해 줄 수는 없으므로 일단 우리가 체험해 보면 압니다. 하지만 그려려면 이를 확고히 믿고 정말 신실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 누군가가 유엔에서 일하고 여러분이 그 월급을 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우리 대신 밥을 먹고 우리가 배부를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러므로 그 방법은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먼저 체험한 사람의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는 별다른 체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신을 체험한 사람의 힘으로 몇 번, 또는 며칠 동안 애쓰지 않고도 매우 자연스럽게 빛과 소리를 조금씩 체험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대개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직접 체험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 너머에는 다른 많은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높은 세계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그곳은 서구식 표현으로 이른바 아스트랄계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스트랄계에는 100여 개의 경계가 있으며 각 경지마다 독자적인 세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이

해 정도를 나타냅니다. 마치 대학에 다닐 때 학년이 올라가면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을 점점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서서히 졸업을 향해 나아가게 됨을 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스트랄계에서는 많은 종류의 신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통에 현혹될 수도 있고, 신통력이 생겨 병자를 치료하거나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여섯 가지 신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보고 들을 수 있으며 거리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천안天眼, 천이天耳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깨뚫어 보거나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1세계에 도달했을 때 얻어지는 힘입니다.

이미 말한 대로 1세계 안에는 수많은 경지가 있으며, 이는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줍니다. 예를 들어 입문을 한 후 명상을 하여 1세계에 이르게 되면 아주 많은 능력이 생깁니다. 전에는 없었던 문학적 재능이 계발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많은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마치 천상의 선물처럼 재정적인 면에서나 직업 면에서, 또는 여러 다른 면에서 많은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고, 이전에는 전혀 할 수 없었던 것들, 또는 가능하다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세계입니다.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글월을 사용해 시를 짓거나 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아마추어 작가였다면 지금은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의식의 첫 번째 세계에 도달했을 때 이런 물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은 신의 선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우리 내면의 천국에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것들을

일깨웠기 때문에 되살아나 이용할 수 있게 된 것뿐입니다. 이것이 1세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그보다 좀더 높은 세계로 올라가 봅시다. 그러면 다른 많은 것을 보고 얻게 됩니다. 시간상 여러분에게 전부 다 말해 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탕이나 과자에 대해 온갖 달콤한 얘기만 듣고 직접 먹어 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식욕을 약간 돌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싶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지요. 나중에 진짜 음식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먹고 싶다면요.

이제 1세계보다 조금 더 높은 2세계(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 2세계라고 하는 거지요.)로 간다면, 신통을 포함해서 1세계보다 훨씬 많은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2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취는 바로 달변, 논쟁에서 이기는 능력으로, 어느 누구도 2세계에 도달한 사람을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엄청난 달변의 능력을 지닌 데다 지성이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이지요.

평범한 두뇌나 지능을 가진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사람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지능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으니까요. 두뇌만 많이 발달한 것이 아니라 신기한 힘, 천국의 힘, 우리 내면에 있는 본래의 지혜까지도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인도에서는 이 등급을 ‘보리(Buddhi)’라고 하는데, 이는 지성의 경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보리’를 얻으면 ‘부처(Buddha)’가 됩니다. 부처라는 말은 바로 이 ‘보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처란 정확히 이런 것일 뿐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부처에 대해서만 소개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고 합니다. 만일 그 사람이 2세계 이상을 모른다면 매우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예. 그는 자신을 생불生佛이라고 생각하고, 그 제자들도 그를 부처라고 부르며 자랑하겠지요. 그러나 사실 그가 2세계에 이르러 원하는 사람의 과거·현재·미래를 다 볼 수 있고 완벽한 달변의 능력을 얻었다 해도 그게 신의 왕국의 전부는 아닙니다.

과거·현재·미래를 읽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선 누구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다시피 이것은 서양식 용어로 아카식 기록(Akashic record)이니까요. 요가나 특정한 명상법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아카식 기록에 대해 이해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옆의 유엔 도서관과 같은 것입니다. 그 안에는 아랍어·러시아어·중국어·영어·프랑스어·독일어 등 온갖 언어로 된 기록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런 언어들을 읽을 수만 있으면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2세계에 도달한 사람은 자신의 일대기를 보듯 한 사람의 생을 아주 명백하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의식의 두 번째 세계에서는 그 밖에도 얻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2세계에 이른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며, 생불인 셈입니다. ‘보리’, 즉 지력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지력이 이제 막 열렸고, 우리 삶을 순조롭고 아름답게 안배해 주는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치유의 근원과 만나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보리’, 지력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와 현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어 과거의 잘못

을 되돌리거나 새롭게 안배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아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거지요.

예를 들면 전에는 우리가 무심코 한 행동으로 이웃의 기분을 상하게 했던 것을 몰랐지만 지금은 그것을 알고 아주 간단히 해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계속 몰랐다면 이웃은 속으로 반감을 가지고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오해하고 있거나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이웃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이웃을 초대해 오해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력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이런 모든 것을 저절로,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고 안배하게 됩니다. 또는 이런 것들을 안배하고 우리의 생활 방식과 삶의 여정이 더 순탄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힘의 원천과 접촉해 많은 사고와 예기치 않은 상황들, 달갑지 않은 일들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2세계에 도달하기만 해도 대단한 것이지요.

따라서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내용은 매우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므로 요가 수행자나 명상하는 사람을 신비하다거나 외계인 같은 존재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지상의 존재로서 그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보한 것뿐입니다.

미국에서는 노하우에 의존하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고들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과학을 초월한 것이긴 하지만 또한 배울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상하게 들리겠지만 더 높은 세계의 것일수록 더 단순합니다. 고등학교나 대학에 가기 위해 아주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것보다도 훨씬 간단합니다.

2세계 안에도 서로 다른 수많은 경지가 있지만 천국의 비밀을 날 날이 모두 다 말할 수는 없으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먼저 여행해 본 스승과 함께 여행하면 여러분도 이런 모든 것을 알게 될 테니 이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나 각 경지마다 수많은 하위 경지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일일이 멈춰서 그곳을 관찰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스승은 때로 여러분을 데리고 이 경지에서 저 경지로 획! 획! 매우 빠르게 이동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스승이 될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많이 배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골치만 아프지요. 여러분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만 해도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때로는 평생이 걸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깨달음을 얻는 건 즉각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입학과 마찬가지로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학에 입학하는 그날부터 대학생이 되지만 그건 박사 학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4년이나 6년, 또는 12년 뒤에나 졸업하게 되지요. 그러나 대학이 진짜 대학이고 여러분이 정말 대학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입학하는 즉시 대학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양쪽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뉴욕에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재미 삼아 이 세상 너머로 가고 싶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맨해튼·롱비치·‘쇼트’비치 등 모든 비치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대중 웃음) 그래서 외계인이 있는 곳에서 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해서 가 보고 싶어한다고 가정해 봅시

다.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바닷물에 몸 담그러 플로리다 마이애미로 가는 데에도 엄청난 돈을 쓰니, 가끔씩 우리의 이웃 행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곳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이 세상 너머 다른 세계로 보러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것이 전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단지 육체 대신 정신과 영혼으로 하는 좀 더 먼 여행일 뿐입니다.

여행에도 두 가지가 있지요. 이건 매우 논리적이고 이해하기도 쉬운 얘기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동시에 다른 세계도 알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국민이지만 이웃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이 나라 저 나라를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인이 아니라고 짐작되는데, 아닙니까? 예.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른 행성, 삶의 다음 경지를 이해하기 위해 여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걸어간다든지 로켓이나 UFO를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세계는 UFO로 날아갈 수 없을 만큼 멀리 있습니다. UFO, 미확인 물체 말입니다! 비행 물체요. 지금 우리 내면에는 그 어떤 UFO보다도 빠른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때로는 영靈이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우리는 연료나 경찰, 교통 체증, 그 외 어떤 문제도 없이 이 영혼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 아랍 국가들이 석유를 팔지 않을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중 웃음) 자체적으로 해결되니까요. 우리가 우주의 계율을 어기고 천국과 지상의 조화를 깨뜨려 영혼을 손상시키려 하지만 않는다면 절대 고장

나지도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주 간단히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다면 그 방법을 말해 주겠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설교가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교회로 데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 뿐이지요.

이 세계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차를 운전할 때 교통 법규를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빨간 불이면 멈추고 파란 불이면 가고, 좌측통행, 우측통행, 그리고 고속도로 제한 속도 등이 있는 것처럼 이 우주의 물질계에는 아주 간단한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이 물질세계 너머에는 법칙이 없습니다. 아무 법칙도 없으며, 그때 우리는 아주 자유로운 시민이 됩니다. 하지만 저 너머에 도달해야만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지,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세상의 법칙을 지켜야만 어려움에 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비행기구 또한 손상되지 않아 아무 문제 없이 더 빨리, 더 높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법칙들은 성경과 불경, 힌두교 경전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해치지 마라, 즉 ‘죽이지 말지어다.’, 외도를 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그리고 오늘날의 마약을 비롯한 중독 물질을 금하라 등과 같이 아주 간단한 것들입니다. 부처는 20세기에 코카인 같은 것들이 발명될 것을 알았는지 마약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마약에는 갖가지 도박과 물질적인 쾌락에 우리 마음을 빠뜨려 영적 여행을 잊게 만드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만일 우리가 위험 부담 없이 빠르고 높이 날기를 원한다면 이런

물질적인 법칙을 지켜야 합니다. 물리 법칙인 셈이지요. 로켓을 발사 시키려면 과학자들이 일정한 법칙을 지켜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UFO보다 빠르고 로켓보다 높이 날아가려면 아주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면 더 많은 세부적인 일들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건 입문 때가 돼서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저런 계율로 여러분을 지루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읽었어요. 열 가지 계율, 맞지요? 10계명이요!”라고 말할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계율을 읽긴 했어도 그것을 크게 신경 쓰거나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면 이해하고 싶긴 한데 그 정확한 뜻대로가 아닌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고 싶어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보거나 좀더 깊은 뜻을 듣는 것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성서 첫 장에 보면 신은 “내가 모든 동물을 너희를 돋고 너희와 친구가 되도록 만들었으니, 너희는 그 동물을 잘 다스려라.”라고 하며 각 동물에 따라 각기 다른 양식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은 우리에게 동물을 먹으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진 않았어요! 신은 “내가 들에 있는 모든 풀과 나무 열매를 만들었으니, 맛도 좋고 보기도 좋구나. 이것이 너희 양식이니라.”라고 하셨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추종자들이 신의 진정한 속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여전히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과학적으로 좀더 깊이 연구해 본다면 인류가 육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 구조, 즉 장·

위·치아 그 모든 것은 과학에서 봤을 때 비건 채식에만 적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병들고, 빨리 늙고, 피로하고, 둔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태어날 때는 아주 총명하고 슬기로웠지만 매일 조금씩 둔해지고 늙을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지다가 끝장이 나는데, 이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비행기구’, 비행 물체, 우리의 UFO를 손상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비행기구’를 좀더 오래,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 보지요. 모두들 운전을 할 테니 차에다 엉뚱한 기름을 넣으면 어떻게 될지 잘 알 것입니다. 아마도 얼마 못 가서 멈추겠지요. 이건 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맞지 않는 연료를 넣었기 때문인 거지요. 또는 물이 섞인 기름을 넣었다면 한동안은 달리겠지만 역시 문제가 생길 겁니다. 또한 엔진 오일이 너무 더러워졌는데도 새로 갈지 않으면 한동안 달리다가 문제가 생기겠지요. 차를 제대로 잘 관리하지 않으면 때로는 폭발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은 여기에서 영원으로, 높은 과학 기술과 높은 지혜의 경지로 날아갈 때 이용하는 비행기구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이것을 손상시키고 올바른 용도로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직장이나 친구가 있는 먼 곳으로, 또는 다른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돌보지 않고 잘못된 기름을 넣거나 오일이나 물탱크 등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차는 빨리 달리지 못하고 오래 달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잔디밭이나 뒤틀에서만 몰게 되지요. 그래도 상관없지만, 그러면 차를 산 목적을 잃어버리는 꼴이 됩니다. 돈과 시간·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요. 그저 그런 것일 뿐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경찰이 벌금을 물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저 차를 타고 멀리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다른 경치를 즐길 수 있는데도 자신의 차와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너머로 날아갈 수 있는 다른 도구들이 이 육신 안에 있으므로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주 비행사가 로켓 안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셈입니다. 로켓은 우주 조종사의 도구로서, 조종사가 물리 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로켓을 잘 다루어야 로켓이 안전하고 빠르게 날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로켓 안에 있는 우주 비행사입니다. 로켓이 우주 비행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긴 하지만 주체는 로켓이 아니라 우주 비행사와 목적지입니다. 겨우 롱아일랜드에 가려고 로켓을 사용한다면 시간 낭비이자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아주 소중합니다. 이 몸 안에 바로 스승이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하느님의 사원이고, 너희 안에 전능하신 하느님이 거하시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이라고 해도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전능하신 신을 품고 있다면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대충 읽고는 이 구절의 중요함을 이해하거나 깨닫지도 못하며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제자들이 내 가르침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상의 힘겨운 싸움·돈벌이·파업 등과 같은 이런 물질적인 문제들과는 별도로 우리 내면에 누가 있고 이 세상 너

머에 무엇이 있는지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더 많은 아름다움,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만나는 올바른 방법을 안다면 모두 우리 것이 됩니다. 우리 내면에 있으니까요. 단지 열쇠를 둔 곳을 모르고 오랫동안 집을 잠가 두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보물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뿐입니다. 그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른바 스승이란, 그 문을 열도록 도와서 원래 우리의 것이었던 것을 보여 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시간을 내서 그 속에 들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물을 하나씩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2세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더 관심이 있습니까? (대중: 예!) 노력도 하지 않고 전부 다 알기를 원하는군요. (스승님 웃으심) 좋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가 보지는 못했어도 다녀온 사람은 그 곳이 어떻게 생겼다고 최소한 말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적어도 흥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가고 싶을 겁니다. 좋습니다. 이젠 2세계 이후로 가 보겠습니다. 아직 2세계에 대한 얘기를 다 끝내진 않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서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자, 2세계를 넘어가면 더 많은 힘을 가지게 됩니다. 굳은 결심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3세계로 가게 됩니다.

이른바 3세계란 더 높은 단계입니다. 3세계에 도달하려면 적어도 이 세상에 진 빚을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만일 이 물질세계의 왕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러 전과 기록이 깨끗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로 가는 국경을 통과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진 빚

에는 물질적 삶의 과거와 현재에 했거나 미래에 할지도 모를 숲한 행동들이 포함됩니다. 3세계에 도달하기 전, 세관을 통과하듯이 이 모든 빚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2세계에서부터 지난 생과 이생의 업을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전생의 업이 없으면 이생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승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혀 업이 없지만 이 세상에 내려오기 위해 업을 빌려 오는 스승이고, 다른 부류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존재이지만 업을 씻은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라도 예비 스승, 미래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승은 때로 업을 빌려서 높은 세계에서 내려옵니다. 업을 빌린다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스승님 웃으심) 가능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전에도 여기 온 적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수많은 생이나 수백 년 동안 다른 사람들과 서로 주고받은 후 여러분은 천국이나 머나먼 여러분의 보금자리로, 최소한 5세계인 여러 다른 차원으로 돌아갑니다. 5세계는 스승의 집이지만 그 너머에도 많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후 우리가 자비심이나 신에게 받은 어떤 임무로 인해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고 싶으면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는데, 과거 사람들과의 인연 때문에 그들 구좌에서 업을 조금 빌릴 수 있습니다. 좋은 거라고는 전혀 없는 빚일 뿐이지요. 우리는 빚을 조금 빌려서 내려와 이 세상에서 우리 임무를 마칠 때까지 천천히 빚을 갚아 나갑니다. 이런 유형의 스승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 출신으로 졸업하듯 수행을 마친 후 곧바로 스승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대학에 교수가 있고, 학생으로 있

다가 졸업하고 나서 교수가 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주 오래된 고참 교수도 있고 이제 막 졸업한 신참 교수도 있는 것처럼 스승들도 이렇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3세계로 가려면 모든 업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야 합니다. 업이란 “뿌린 대로 거두리라.”라는 법칙입니다. 오렌지 씨를 뿌리면 오렌지가 나고 사과 씨를 뿌리면 사과가 생기는 것, 바로 이것이 이른 바 업입니다. 이는 산스크리트어로 인과를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업이란 말 대신 “뿌린 대로 거두리라.”라고 말했는데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의 가르침을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애도 짧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성경본이 꼭 영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많은 지도자들의 정책에 의해 검열을 받고 변형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분야의 것들을 사고합니다. 그런 브로커들이 사회 곳곳에 가득 차 있지요. 그러나 진짜 성경은 약간 다릅니다. 좀더 길고 보다 명확하며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여하튼 그 대부분은 증명할 수 없으니 사람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할 수도 있는 얘기에 대해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말하면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럼 2세계, 3세계, 4세계가 있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걷는다면 같은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나도 여러분에게 증명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지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감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전세계 수천, 수만 명의

제자들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여러분이 나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에게 “당신이 나 대신 걷고 내게 모든 것을 말하고 보여 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유엔에 있는 이 방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이 방에 대해 내게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는 실제적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 있는 안내자와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방에 있는 여러 국적을 가진 나의 제자들은 내가 방금 여러분에게 말한 그런 내용들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체험했습니다.

3세계를 넘어갔다고 다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은 한 토막에 지나지 않습니다. 작은 부분에 관해 대충 이야기 한 하나의 여행담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 관한 책을 읽는다고 그게 실제 그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에 관한 여행 서적들이 많이 있는데도 직접 그곳에 가보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스페인·테네리페·그리스에 대해 알지만 이런 것은 영화나 책을 통해서 아는 것일 뿐이죠. 우리가 그곳에 가서 실제로 지내는 기쁨을 맛보고 그곳 음식과 달콤한 바닷물, 멋진 날씨, 친절한 사람들, 온갖 분위기 등 책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직접 경험해 봐야 합니다.

자, 3세계를 지났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엔 어디로 가게 될까요? 당연히 더 높은 4세계가 되겠지요. 4세계는 이미 비범의 범주로 넘어선 세계입니다. 그저 단순한 말로는 그 세계의 모든 것을 일반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그 세계 왕의 비위를 건드릴 것

입니다. 이 세계는 정전이 된 뉴욕 밤거리보다 더 어두운 곳도 있지만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도시 전체가 암흑에 잠기는 경험을 해봤습니까? 예! 그보다도 더 침침합니다. 그러나 빛에 이르기 직전이 더 침침한 법입니다. 이곳은 일종의 금단의 도시로서, 신의 지혜에 도달하기 전 우리는 그곳에서 멈추게 됩니다. 경험 있는 스승과 함께라면 그곳을 통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세계에선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다른 세계에 이를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변화뿐 아니라 물질적인 변화, 지적인 변화를 겪게 되며,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고, 다르게 생활하고 다르게 일하게 됩니다. 일상적인 일조차 다른 의미를 띠게 되고,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하고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또는 왜 직업을 바꾸어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이해하게 되어 더 이상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으며, 아주 조화롭고 참을성 있게 지구에서의 임무가 끝나길 기다립니다.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지 알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사는 동안 그것을 압니다. 그것이 이른바 ‘살아서 죽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이런 말을 들어 봤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그 말을 달리 표현할 수 있는 스승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군요. (스승님 웃으심)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적인 체험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느껴 봐야 합니다.

누가 벤츠를 달리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지요. 벤츠를 소유하고 있고 벤츠를 아는 사람이라면 똑같이 묘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벤츠는 아니지요. 그래서 내가 비록 평범한 언어로 여러분에게 말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며, 우리 자신

이 신실한 노력을 통해 체험해 봐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더 안전합니다. 우리 혼자서 해낼 가능성은 백만분의 일이고, 설령 그런 경우에도 위험과 모험이 뒤따르며, 그다지 안전하지도 않고 결과를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 스웨덴보르그나 구제프 같은 사람들은 스스로 해낸 경우입니다. 아마도 구제프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사람들에 관해 읽어 본 바로는 그들에게 많은 위험과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었으며, 그들 모두가 높은 세계에 도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4세계를 넘으면 더 높은 세계, 5세계로 올라갑니다. 이곳은 스승의 고향으로 모든 스승은 여기에서 옵니다. 그들의 경지가 5세계보다 높더라도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곳이 스승의 거처인 거지요. 그리고 그 너머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의 많은 면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해선 다음번에 얘기하겠습니다. 아니면 입문 후 여러분이 좀더 준비가 되었을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막힌 것들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신에 대한 많은 관념이 때때로 어떻게 잘못되는지 말입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질문(이하 Q): 깨달은 스승은 사람들의 업을 빌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사람들의 업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칭하이 스승(이하 A): 그 스승이 원한다면 어느 누구의 업이라도 없

앨 수 있습니다. 사실 입문 때 모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난 생의 업은 모두 다 없어집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생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이생의 업만 남겨 둡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죽습니다. 업이 없으면 여기서 살 수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스승은 그 사람이 깨끗해지도록 축적된 업만 없애 줍니다. 또한 약간의 업을 남겨 둠으로써 그가 이생에서 할 일을 계속하다가 이생이 끝났을 때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가 이생에서 깨끗했다 해도 얼마나 깨끗했겠어요? 그리고 전생은 또 어떻고요? 이해 하겠습니까?

Q: 수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A: 목적이 뭐냐고요?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이 세상 너머 신의 왕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지혜를 알고 이생에서도 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Q: 각 세계마다 다 업이 있습니까?

A: 모든 세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세계까지만 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두뇌, 즉 컴퓨터가 2세계에서 ‘제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높은 세계에서 각 세계를 거쳐 내려와 이 물질세계에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스승조차도 5세계에서 물질세계로 내려오기 위해 2세계를 거쳐서 이 ‘컴퓨터’를 골라 착용해야만 이 세상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잠수부가 바다에 들어갈 때 산소마스크와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수부 자신은 이상하지 않을지

라도 산소마스크와 잠수복을 입으면 개구리처럼 보입니다. 이 컴퓨터나 물질적 장애물을 갖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신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의 원래 모습과 비교하면 아주 못생긴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깊이 들어가 일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장비들을 착용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2세계를 지나 더 높은 세계로 갈 때는 컴퓨터를 두고 갑니다. 이젠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으니까요. 잠수부가 해안에 닿으면 산소마스크와 모든 잠수 장비를 벗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지요.

Q: 스승님께선 2세계의 끝에서 더 높은 세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모든 업을 남겨 두어야 한다고, 즉 모든 업을 없애거나 정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생에 오게 된 과거의 업 전부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A: 그렇습니다. 기록할 ‘컴퓨터’가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 업이 있는 것은 이 ‘컴퓨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뇌, 마음이 물질세계의 모든 경험을 기록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업장이 있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모두 여기에 입력됩니다.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업이 뭐냐고요? 바로 좋고 나쁜 모든 경험들, 많은 생동안 우리가 반응하고 배운 경험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른바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나쁜 짓을 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쁜 업은 우리를 숨도 못 쉬게 짓누릅니다. 산에 올라갈 때 엄청난 쓰레기나 짐 같은 나쁜 것들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 우리를 끌어내리고 올라가기 힘들게 하는 것과 같지요. 이 세상의 수많은 도덕규범들, 여러 나라의 수많은 법률과 풍속·관습들이 이른바 선과 악, 죄와 무죄의 개념으로 우리를 속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교류할 때 그 나라의 법률과 관습·풍속에 따라 선과 악, 죄와 무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죄가 되고 저렇게 하면 나쁜 사람이란 식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들게 됩니다. 두뇌가 이 모든 것을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가 윤회하는 것이고, 이 물질세계나 약간 높은 세계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높지도 못하고 충분히 자유롭거나 위로 날아갈 만큼 가볍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생각과 편견 때문이지요.

Q: 태어날 때마다 그 생에 어떤 등급에 도달할지 미리 정해져 있습니까?

A: 아닙니다. 우리에겐 빨리 달리거나 느리게 달릴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에 100리터의 기름을 넣는다고 해도 여러분은 차를 빨리 운전해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도 있고 늦게 달릴 수도 있습니다. 결정은 여러분에게 달린 거지요.

Q: 저는 천사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그들은 어떤 등급입니까?

A: 어떤 등급이냐고요? 아, 그것은 어떤 종류의 천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Q: 수호천사들이요.

A: 수호천사들은 2세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인간보다 낫습니다. 위상이 다소 떨어지지요. 그들은 우리에게 봉사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Q: 그 이상으로는 못 올라갑니까?

A: 그렇습니다! 인간이 될 때를 제외하고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매우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에는 신이 머무르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겐 신과 하나가 될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지만 천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긴 좀 복잡하니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 쓰이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종류가 각기 다른데, 예를 들어 신이 만든 천사라면 우리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이상을 넘을 수도 있지만 넘을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 어떤 것은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신만의 편의를 위해 집에 뭔가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여기 앉아서도 집안이나 정원의 불을 끄고 켤 수 있으며, TV도 끄고 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멋진 것이라 해도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발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에게 봉사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보다 더 낫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여기 앉아서 다 조절할 수 있다 해도 여러분보다 더 나은 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에게 봉사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선 여러분보다 낫

다고 해도 그런 게 아닙니다. 컴퓨터는 결코 인간이 될 수 없으니까요.

Q: 칭하이 스승님, 우리가 지금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건 전에 잘못해서 해탈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우리는 늘 이런 상태였습니까? 아니면 더 나은 상태였나요? 지금과 똑같은 상태였나요? 이 상태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나 견해가 바람직한가요?

A: 육신을 벗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요? 예, 방법을 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육체를 남겨 두고 이 세상 너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고도 많습니다. 어떤 방법은 멀리 가지 못하고, 어떤 방법은 아주 멀리까지 가며, 어떤 방법으로는 끝까지 갑니다. 내가 짚었을 때부터 (지금도 짚어 보이긴 하지만 그땐 더 짚었지요.) 온갖 방법들을 연구 비교해 본 결과 우리의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멀리, 가장 끝까지 갈 수 있지요.

다른 방법도 많이 있으니 체험하고 싶다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은 아스트랄계까지 가고 어떤 것은 더 멀리 3세계나 4세계까지 있지만 5세계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법문, 우리의 수행은 여러분을 5세계로 데려가고, 그후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혼자 가게 하지요. 그리고 5세계를 넘어서서는 신의 다른 면모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꼭 즐거운 것만은 아니지요.

우리는 높을수록 더 좋으리라고 상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궁전에 초대를 받아 들어가면 거실에서 시원한 음료와 훌륭한 식사, 모든 것을 대접받습니다. 그러다가 집안 구석을 좀더 들어가 구경하고 싶어지면 과감하게 쓰레기장에도 가 보

고 하면서 그 집안에 대한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게다가 집 뒤에 있는 발전실로 들어가면 감전되어 거기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깊이 들어간다고 꼭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험 삼아 해볼 수는 있겠지요.

Q: 칭하이 스승님, 질문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전생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억은 몇 세계의 것입니까? 두 번째, 과거 생은 현재의 업장, 그리고 현재 개인이 갖고 있는 이해력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초과 수하물’의 일부인가요?

A: 예,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과거의 업장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은 전생의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전생의 기록은 아카시 기록에서 비롯됩니다. 예. 이는 2세계에 있는 일종의 도서관으로 2세계에 이른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유엔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정보를 볼 순 없지만 나 같은 경우는 유엔에서 연설하도록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어도 여러분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주하고 있으니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2세계에 도달하면 과거 생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세계의 어떤 곳에서도 누군가의 전생 일부분을 슬쩍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높거나 정확한 기록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생의 경험이 현재의 업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생에서 잘 살아가도록 배워 둔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생에 습득했던 것이 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마

찬가지로 전생에 불쾌한 경험을 많이 했다면 그와 비슷한 어떤 상정을 보았을 때 무서워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전생에 계단에서 떨어졌을 때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어둠 속에서 큰 부상을 입었다면 지금도 계단을 내려갈 때 좀 두려울 겁니다. 특히 밑이 깊어서 어두운 계단인 경우엔 갈까 말까 망설이게 됩니다. 또는 여러분이 전생에 과학 분야를 깊이 공부하고 연구했다면 이생에서도 여전히 흥미가 생기고, 지금은 과학자가 아닌데도 과학 연구에 특별한 관심을 두게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차르트가 대단한 천재였던 것입니다. 그가 네 살 때 피아노를 연주한 얘기는 지금까지도 유명합니다. 그가 천재였던 것은 수많은 생에서 음악을 연습해 통달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고선 바로 죽었지요. 음악적 생애가 정점에 이르기 직전에 죽은 그는 음악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그냥 떠나기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배운 음악적 재능을 모두 가지고 다시 온 것입니다. 죽을 때 음악을 계속하고 싶다는 욕구가 아주 강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기 전에 아스트랄계나 2세계에서 많은 것을 배웠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학·음악·문학·발명 같은 면에서 일반인보다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못하며 발명할 꿈도 꾸지 못하는 매우 기발한 발명품을 만들어 내는데, 그건 그들이 이미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와 이 세계 너머에는 두 종류의 학습이 있는 셈

입니다. 천재들처럼 천부적인 재능이 있고 탁월한 사람들은 아스트랄계나 2세계와 같은 이 세상 너머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3세계에서 스스로 선택해 이 세상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은 탁월합니다. 천재들이지요.

Q: 입문의 조건은 무엇이며, 입문 후에는 매일 어떤 수행을 해야 합니까?

A: 우선 이 입문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어떤 구속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아가길 원해서 자신의 행동을 제약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말입니다. 경험이나 요가나 명상에 대한 사전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 비건 채식을 해야 합니다. 계란도 안 됩니다. 살생과 연관이 없다면 모두 괜찮습니다.

계란은 반살생半殺生이기 때문에 무정란이라도 안 됩니다. 또한 계란에는 부정적인 힘을 끌어들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흑·백신통을 부리는 많은 사람들이나 부두교인들이 마장에 걸린 사람에게서 마귀를 끌어낼 때 계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압니까? (누군가 안다고 대답함) 안다고요? 아, 대단하군요! 내가 즉각 깨달음은 못 주더라도 (대중 웃음) 적어도 즉각적인 증거는 댈 수 있는 셈이네요.

입문할 때 여러분은 신의 빛과 소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영혼의 음악은 여러분 의식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 깊은 평화와 희열인 삼매를 맛보게 해줍니다. 그후 여러분이 진지하게 수행하고자 한다면 집에서 계속 수행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러분에게 강요하거나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계속 수행

하면서 내 도움을 원한다면 나도 계속 도울 것이고, 여러분이 원치 않는다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2시간 30분 명상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나 자기 전에 2시간 명상하고 점심시간에 30분 정도 명상하면 됩니다. 내가 여기 강연하러 오지 않았다면 여기 점심시간은 1시간이니까 어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가서 명상하면 됩니다. 그러면 벌써 1시간은 해결된 거지요. 그리고 저녁에 1시간이나 30분 더 명상하면 됩니다. 아침에 한 시간 일찍 일어나고요. 생활을 보다 짜임새 있게 조정하십시오. TV를 덜 보고 잡담과 전화를 줄이고 신문 보는 시간을 줄이면 시간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만 때로 시간을 낭비합니다. 마치 차를 타고 롱아일랜드에는 가지 않고 뒷마당에서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대답이 됐습니까? (질문자: 예!)

평생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외에는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좀더 나은 여러 가지 변화와 삶의 기적들을 체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수행한다면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의 제자들이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나를 따르는 겁니다. 정말 신실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점점 더 좋은 체험을 하니까요.

Q: 의식의 속성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A: 의식의 속성이요? 좋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여러분이 가진 지식을 이용해 상상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의식은 일종의 지혜입니다. 마치 어떤 것에 대해 전보다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것 말입니다.

예, 이 세상 너머에 있는 뭔가를 알고, 전에는 몰랐던 이 세상의 뭔가를 알게 되며, 예전이나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식, 혹은 이른바 지혜라는 것이 열리면 자신이 누구이고 왜 이곳에 왔으며, 이 세상 너머에는 어떤 세계가 있고 우리말고 또 어떤 존재가 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우주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의식의 단계는 이해력의 등급과 같습니다. 대학에서 학문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다 졸업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추상적인 것이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각입니다. 자각도 설명하기가 어렵군요. 다양한 높은 의식 수준에 이를 때마다 자각의 정도도 달라집니다. 사물에 대한 이해와 느낌이 달라지지요. 완전한 평화·고요·법열만을 느끼며, 아무 근심 걱정도 없고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명백하게 다가옵니다. 또한 일을 처리하는 방법과 문제를 더 잘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물질적인 수준에서도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으니 내면의 느낌이 어떨지는 여러분만이 알 겁니다! 이런 것들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그 느낌이 어떤지는 당사자만 아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대신 느껴 줄 수 없습니다.

Q: 존경하는 스승님,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승님께서 제 마음속의 의혹들을 풀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이렇게 빨리 배울 기회를 주는 스승들이 많은 까닭은 무엇

입니까? 이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 예, 물론이지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통신 수단이 발달해서 스승에 대해 잘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스승이 없었다거나 스승을 찾아갈 수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떤 스승은 다른 스승에 비해 접근이 좀더 손쉬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건 스승의 선택이나 기꺼이 주고자 하는 마음, 또는 대중들과의 인연에 달렸지요. 그래도 어떤 시대건 한 분에서 다섯 분 정도의 스승은 항상 있었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다르지요. 단지 우리가 지금 경지가 제각각인 수많은 스승의 존재에 대해 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은, 현대에는 다행히도 대중 매체와 TV 및 라디오 방송, 그리고 순식간에 수천 수백만 권씩 나오는 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책을 한 권 인쇄하려면 먼저 한 번 쓰고 나면 못 쓰는 투박한 도끼로 나무를 통째로 베고 다시 그것을 가늘게 쪼개야 했습니다. 그리고 돌 같은 것으로 나무 조각을 다듬은 다음 한 글자씩 새겨 넣어야 했지요. 그러니 성경 한 권을 옮겨 적으려면, 그 당시에 트럭이 있었다면 큰 트럭들이 끝없이 이어져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스승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주 운이 좋지요. 쇼핑하듯 자신이 원하는 스승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도 자기가 최고라고 속일 수 없으니 여러분에게도 정말 잘된 일입니다. 여러분은 비교할 수 있고 지혜로 총명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스승이 더 낫다.”, “나는 저 스승이 더 좋아.”, “끔찍한 얼굴이야.”, “아, 저 사람, 진짜 못생겼다.” 하고요. (대중 웃음)

Q: 쇼핑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러면 이미 다른 스승에게 입문한 사람도 입문시키십니까?

A: 그 사람이 내가 자신을 더 높은 세계로 더 빨리 데려다 줄 수 있다고 진실로 믿기만 하면 입문시키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예전의 스승을 믿는다면 그 스승을 그대로 따르는 편이 낫습니다. 자기 스승이 최고라고 믿는다면 바꾸지 마십시오. 하지만 계속 의심이 나고 내가 말한 빛과 소리를 아직 체험하지 못했다면 한번 시도해 봐야 합니다.

빛과 소리는 진정한 스승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빛과 소리를 즉시 주지 못한다면 유감스럽게도 그는 진정한 스승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가기 위해선 빛과 소리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마치 바다에 잠수하려면 산소마스크와 온갖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처럼 각각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장비들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인에게 후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빛입니다. 여러분이 이 법문으로 수행하면 예수를 그린 그림에 있는 것과 똑같은 빛을 발산하게 되며, 영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와 부처를 그릴 때 주변에 후광을 넣는 것입니다. 이곳이 열렸다면 (스승님이 당신의 지혜안을 가리키심) 수행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봅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 그런 빛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Q: 전 오라를 볼 수 있습니다.

A: 아, 하지만 오라는 빛과 다릅니다. 오라는 다양한 색깔인데, 검정색이나 커피색일 때도 있고 노란색이나 빨간색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때 기분에 따라 다르지요. 그러나 강력한 영적 오라를 가진 사람을 보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Q: 사실 저는 질문할 게 없습니다. 저는 한때 라자요가를 했는데, 저 역시 오라를 본 것 같습니다. 그땐 아무것도 몰랐지만요.

A: 그럼 지금은 안 보입니까? 가끔씩만 보나요?

Q: 예, 지금은 명상을 안 하거든요.

A: 아, 예. 그래서 당신이 힘을 잃은 겁니다. 다시 명상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아직도 그 길을 믿는다면 명상해야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는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해롭지는 않을 거예요.

Q: 책자에서 5계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일단 입문하면 5계에 따라 살아야 합니까?

A: 예. 그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Q: ‘간음’이라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A: 그것은 이미 남편이 있으면 또 다른 남자를 생각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중 웃음) 아주 간단하지요. 보다 단순하게 살며 감정적으로 복잡하거나 다툼 없이 살아가십시오. 예, 그런 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해칩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도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갈등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든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래야 하고요. 그뿐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있다면 남편에게 말하지 마세요. 말을 하면 더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냥 서서히 조용하게 해결하고 남편에게 고백하지 마십시오. 간혹 사람들은 외도를 하고는 집에 가서 부인이나 남편에게 고백하는 게 아주 현명하고 솔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좋을 게 없습니다. 이미 잘못을 저질렀는데 왜 쓰레기를 집에 가져가 다른 사람에게 안겨 줍니까? 배우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그렇게 괴롭진 않을 겁니다. 안다는 사실이 상처를 주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두 번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됩니다. 배우자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는 편이 더 낫습니다. 그로 인해 상처를 받을 테니까요.

Q: 저는 많은 영적 스승들이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수행과 유머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A: 아, 그들이 마냥 행복하고 이완되고 만사에 있어 훌가분하기 때문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하게 매달리고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 그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웃을 수 있고, 이생의 어리석은 것들에 대해 웃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행하고 나면 우리는 ‘느슨해져’ 더 이상 심각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죽게 되면 죽고 살게 되면 삽니다. 모든 걸 잊게

되면 잃고 모든 게 생기면 그냥 가지지요. 깨달은 후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지혜와 능력이 생기므로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초연하게 느끼며 얻고 잃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얻는다 해도 그건 오로지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로움을 위해서일 테니 그냥 내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삶을 고군분투하고 고통을 감내하며 지켜 낼 만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루 종일 못 침상에 앉아 명상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일을 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수공예를 해서 생활비를 벌지요.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도 보시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입도 꽤 되어서 난민들과 이재민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능과 능력이 많은데 왜 일을 하면 안 됩니까? 깨달은 후에는 삶이 아주 편안해져 걱정할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연스럽게 이완이 되지요. 그래서 유머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께서 유머 감각을 발견했나요? (대중: 예.) (대중 웃음과 박수) 그럼 나도 스승인 게 틀림없겠군요? (대중 웃음)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깨닫지도 못한 스승의 말을 듣느라 두 시간이나 낭비한 게 아니게 되니까요.

Q: 우리는 영혼을 추구하면서 언제나 질문하고 이론이나 이야기

를 듣는데, 스승님께서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첫 질문은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곤경에 처하게 됐으며,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고향을 떠났으며, 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도요. 또한 스승님께서는 5세계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이상 더 높이 가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지는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보다 더 높은 세계가 있다면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면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A: 지금 유머가 발휘되고 있군요. (대중 웃음과 박수) 좋아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사禪師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뉴욕에 넘쳐나니까 전화번호부를 보고 한 사람을 찾아가세요. (대중 웃음) 나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당신이 여기에 있는가?’는 아마 당신이 여기 있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신의 자녀인데 어느 누가 우리를 이곳에 얹지로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른바 신의 자녀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자는 어느 면에서 왕과 비슷하며, 거의 왕과 같거나 미래의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있고 싶은 곳에만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에겐 천국이나 몸소 경험할 어떤 곳에 있고자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아주 오래전, 태초에 모험이 가득하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배우려고 이곳을 선택했을 겁니다. 무서운 경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왕자는 궁전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자연 탐구를 즐겨 밀림을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일 수 있지요. 우리는 천국에서 너무 따분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궁전에는 모든 것이 마련되어 있고 그곳에선 온갖 시중을 다 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뭐가 하고 싶어진 거지요. 마치 왕족들이 때로는 자기 손으로 요리하고 싶어서 하인들이 옆에 있는 걸 싫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온 궁전에 케첩과 기름 범벅을 해 놓고도 좋아합니다. 전혀 왕자답게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그런 걸 좋아하지요.

또 나 같은 경우엔 나를 위해 운전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내 운전기사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운전하고 싶어져 세 발 달린 작은 전기차를 타고 다닙니다. 매연도 없이 전기로 가는데 시속 10km로 달립니다. 나는 그렇게 돌아다니기를 좋아합니다. 어디를 가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기 때문에 때로는 나를 몰라보는 곳에 가고 싶지요. 나는 강연을 위해 말할 때 빼고는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아내서 유명하게 만든 후로는 강연이 나의 임무가 되어 버려 자주 도망가지는 못하지만 가끔 두세 달 동안 도망가기도 합니다. 마치 남편에게서 도망가는 바람난 부인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의 선택이지요.

그러니 여러분은 한동안 여기에 있기로 선택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는 이 세상에서 배울 만큼 배워서 더 이상 배우고 싶은 것도 없고 여행에도 지쳤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고 싶을 겁니다. 쉬고 싶은 거지요. 그러니 집에 가서 우선 쉬고 난 후 모험이 넘치는 여행을 다시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내가 말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왜 5세계이고 6세계는 아닌가?’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5세계 이후에는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위로도 세계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5세계에 머무르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중립적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면 너무 강력할 것입니다. 잠시 가 볼 수는 있지만 거기서 쉬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집에도 어느 한구석엔 화장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곳에서 영원히 쉬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비록 그것이 집보다 멋지고 산처럼 높고 아름답다 해도 쉴 만한 장소가 못 되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여러분 집에 있는 발전실이 도움이 되긴 해도 발전기 소리가 시끄럽고 열이 나서 뜨겁고 위험하므로 그곳에 있고 싶어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신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높이 올라갈수록 사랑이 더욱 넘칠 것이라고 상상하지만, 사랑에는 격렬한 사랑, 강한 사랑, 부드러운 사랑, 중립적인 사랑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우리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가에 따라 각기 다른 정도의 사랑을 줍니다. 경지마다 다른 신의 사랑을 받지요. 하지만 어떤 사랑은 너무나 강렬해서 마치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Q: 저는 주변에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동물에게도 잔인하고요. 스승님은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해탈하고자 노력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 파괴에 대항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충고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스승님께서는 이 세상 너머로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구상에 있는 우리가 이런 고통을 줄이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리고 이런 것이 어떤 도움이 됩니까?

A: 예. 도움이 되지요. 최소한 우리와 우리 양심에는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고 있다고 느끼고, 우리 동족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나도 그와 똑같이 합니다. 당신이 물어본 일을 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이미 말했듯이 우리는 재난을 겪고 있는 다른 단체나 나라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랑하려는 생각은 없었지만 질문을 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작년에는 피나투보 화산 이재민들을 위해 필리핀에 원조를 해주었고, 어울락과 중국의 홍수로 인한 수재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엔의 부담을 덜기 위해 어울락 난민들을 돋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우리 도움을 원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재정적으로 돋고 있고, 또한 유엔의 은총으로 할 수만 있다면 난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는 여러분이 요청한 그러한 일을 모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환경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돋고 세상의 도덕적 수준에도 이바

지하며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다 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서 영적인 도움은 원치 않고 물질적인 도움만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 물질적으로 돋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의 보시를 받아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모든 출가 제자들과 재가 제자들은 여러분처럼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영적인 도움을 주고, 고통 받는 사람을 도우며, 세상의 고통을 없애도록 돋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앓아 삼매나 즐기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이기적인 부처(깨달은 존재)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부처를 원치 않습니다. (대중 웃음)

Q: 스승님께선 어떤 경지에 이르면 자신에게 힘이 있음을 인식하고 또한 그 힘은 자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자신에게 그 힘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 힘을 활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만약 그 힘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주위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어떻게 참으십니까?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아주 더디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때 신에게 기도한다거나 더 좋고 빨리 해결하는 다른 방도를 알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한 그 힘을 활용해 좋은 결과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말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A: 이해합니다. 당신의 뜻은 우리가 상황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 일들이 관료적이고 더디게 진행되면 어떻게 그것을 참아내느냐는 것이지요? 그냥 기도만 하겠는지, 아니면 신통을 부려 손가

락으로 밀어 버리겠느냐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나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립니다. 혼란을 불러오지 않으려면 이 세상과 보조를 맞춰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기는 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급하거나 뛰고 싶다고 해서 아이를 뛰게 해선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비틀거리다가 넘어질 테니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달릴 힘이 있어도 아이와 함께 걸어야 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나도 좌절하고 마음이 급해지지만 스스로를 참으라고 다독거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데도 난민들을 위해 이 대통령, 저 대통령을 찾아가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전 재산, 수백만, 심지어 수천만 달러도 다 줄 것이지만 행정상의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주라.”라고 했으니까요.

나는 유엔을 움직이려고 머리를 쓰거나 신통을 부리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안 할 겁니다. 영력이나 신통력을 쓴다면 이 세상에 재난을 일으키게 되므로 순리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치유하고 영적인 지혜나 깨달음으로 사람들의 의식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사람들과 나누면 그들도 이해하고 협조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방법이지 신통을 써서는 안 됩니다. 나는 살면서 어떤 방면에서든 결코 의도적으로 신통력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행자들에게는 기적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로서 의도적인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기는 뛸 수 없는 법이니까요. 됐습니까? 내 대답이 만족스럽습니까?

내 대답 중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더 설명 할 테니까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여러 나라에서 선택된 가장 지적 인 사람들이므로 굉장히 총명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계에 유엔이 있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세상의 갈등과 전쟁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을 줄입니다. 유엔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우리 모두가 유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자신도 유엔의 일 가운데 일부를 지원해 왔으며, 누구도 해낼 수 없었던 인질들을 효율적으로 구해 낸 노력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구해 내지 못했는데 유엔의 한 임원이 그 일을 해 냈습니다. 그리고 유엔은 재난 구호와 난민 문제에 관해 많은 일을 하고 있지요.

유엔이 1,200만이나 되는 난민을 책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일이 아주 많지요. 전쟁과 온갖 일들도 처리해야 하고요. 그러나 유엔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예, 정말 좋은 일입니다.

Q: 칭하이 스승님, 지혜를 나눠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환경 남용, 식량 부족에 관한 질문인데요. 급격한 세계 인구 증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업인가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업이 되나요?

A: 이 세상에 인구가 많아지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게 뭐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더 시끌벅적하고 더 재미있어지잖아요? (대중 웃음) 사실 인구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골고루 분포되

어 있지 않은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특정한 지역에만 밀집되어 있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뿐이에요. 세상에는 개발되지 않은 광대한 황무지와 무인도도 많고, 울창한 숲 외엔 아무 것도 없는 광활한 고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뉴욕 같은 곳에 모여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중 웃음) 여기가 더 재미있으니까요. 만일 어떤 정부든 다른 지역에 여러 가지 일자리와 산업, 여러 가지 고용 기회를 마련해 놓으면 사람들은 그곳으로 일하러 갈 겁니다. 사람들이 특정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은 그곳이 일자리를 찾기 쉽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른 지역에서도 안전이 보장되고 취업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람들은 그곳에도 갈 겁니다. 사람들은 안전한 곳이나 생계를 찾기 마련입니다. 아주 자연스런 현상이죠.

그러니 인구 과잉에 대해 겁내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좀더 이로운 일자리와 주거 공간, 안전의 혜택을 주기 위해 보다 조직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나 똑같아져서 결코 인구 과밀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식량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더 잘 알아봐야 합니다. 미국에는 세계를 보존하는 방법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비건 채식은 세계 자원을 보존하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동물을 사육하기 위해 막대한 비건 채식 식량과 에너지, 전기, 의약품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사람들을 직접 먹여 살리는 데 쓸 수 있을 겁니다.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단백질이 풍부한 곡물과 채소 등을 아주 싼 가격으로 팔긴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식량

이 골고루 배분된다면 비건 채식은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동물과 전세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느 잡지의 한 보고서에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비건 채식을 한다면 전세계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직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쌀겨로 영양 식품과 우유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약 30만 달러가 있으면 스리랑카의 가난하고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과 부녀자 등 약 60만 명을 먹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많은 나라에서 천연자원을 낭비하는 게 문제지 천연자원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신은 우리를 여기서 굶주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 스스로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생각하고 재조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국가 정부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절대적인 정직과 청렴함, 품위, 그리고 자신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려는 의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모든 국가 정부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는다면 우린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훌륭한 지도자와 좋은 경제 조직, 우수한 인재, 정직한 정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나 대부분 사람들 또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일 때 좀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들이 규범을 알고 계율을 알며, 정직하고 청렴해지는 방법도 알고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는 방법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많은 일을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삶을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Q: 그것은 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오늘날 일어나는 대다수의 환경 파괴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거 공간 및 주택, 그리고 20세기에 걸맞은 생활양식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의 밀림을 예로 들면, 그곳에서는 환경이 남용되고 열대림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고엽제를 뿌리는 바람에 홍수가 발생하고 있고요. 이건 인구 과잉과 무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A: 예. 물론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가지가 아닌 뿌리부터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바로 영적인 안정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대중 박수)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영적인 수양을 계속해 나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죠. 전기 장치에 플러그를 꽂고 어떤 빛과 윙윙거리는 음악으로 삼매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규범이 없다면 때로는 그 힘을 나쁜 일에만 쓰게 되고 그것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는 먼저 계율을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계율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그 힘을 잘 조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힘, 자비심이 없는 힘, 도덕적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힘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용되어 흑마술이 될 것입니다. 예, 흑마술은 바로 이런 데서 생깁니다.

그래서 깨닫기는 쉬워도 그 깨달음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법문에서는 제대로 절제하지 않거나 도덕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스승은 여러분이 그 힘을 남용해 사회에 나쁜 일을 못 하도록 그 힘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 점이 다릅니다. 스승이 제어합니다. 스승의 힘이 제어하는 거지요.

여러분의 지적인 질문에 매우 기쁩니다. 매우 지적이군요.

여러분이 지적했듯이 사람들이 땅을 남용하는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뿐리는 지혜, 바로 영적 수행에 있습니다. 깨달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입문: 관음법문

칭하이 스승은 진리를 구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관음법문에 입문시킵니다. 한자로 ‘관음觀音’은 소리의 진동을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이 법문은 내면의 빛에 대한 명상과 내면의 소리에 대한 명상,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내면의 체험은 고대로부터 세계의 모든 종교 경전에 반복해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 말씀이 곧 하느님이니라(요한복음 1장 1절).”라고 씌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면의 소리입니다. 또한 이것은 로고스Logos·샤브드Shabd·도道·음류音流·나암Naam, 또는 천국의 음악으로 불려 왔습니다. 칭하이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생명의 내면에 진동하고 있으며, 온 우주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선율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갈망을 실현시키며, 모든 세속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아주 강력하며,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 소리로 만들어졌으므로 이 소리와 만나면 우리의 가슴에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줍니다. 이 소리를 들은 후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관이 보다 올바른 모습으로 상당히 바뀝니다.”

내면의 빛, 즉 신의 빛은 ‘깨달음(enlightenment)’이라는 말에 언급된 것과 같은 빛입니다. 이 빛의 강도는 희미한 빛에서부터 수백만 개

의 태양빛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이 내면의 빛과 소리를 통해 우리는 신을 알게 됩니다.

관음법문 입문은 밀교적인 의식이나 새로운 종교를 갖는 의식이 아닙니다. 입문 중에는 내면의 빛과 내면의 소리를 명상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있으며, 칭하이 스승은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법을 전합니다. 침묵 속에서 신의 존재를 처음으로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문’을 열어 주기 위해서 칭하이 스승의 육신이 함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이심전심의 전수야말로 이 법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스승의 가피가 없다면 명상법 자체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입문할 때 즉시 내면의 소리를 듣고 빛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돈오頓悟’ 또는 ‘즉각개오即刻開悟’라고 하기도 합니다.

칭하이 스승은 어떤 배경이나 종교에 구애됨 없이 모든 사람들을 입문시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현재의 종교나 신앙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의 생활 방식에 맞지 않는 어떤 단체에 가입하라거나 참여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비건 채식을 해야만 합니다. 평생 동안 비건 채식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입문의 필수 조건입니다.

입문은 무료로 행해집니다.

관음법문으로 매일 명상하고 5계를 지키는 것이 입문 후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계율은 여러분이 자신과 다른 모든 중생들을 해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길잡이입니다. 이러한 수행은 첫 깨달음의 체험을 더 깊고 강렬하게 해주며, 마침내 여러분 스스로 깨달음의 최고 경지, 또는 성불의 경지에 도달하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매일 수행하지 않으면 깨

달음을 잊게 되어 평범한 의식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칭하이 스승의 목표는 우리가 자립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승님은 어떤 장치나 베풀 목 없이 누구나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스승님은 추종자나 승배자, 제자들을 구한다든지 회비를 걷는 단체를 설립하든지 하지 않습니다. 스승님은 여러분의 돈이나 선물 또는 큰 절을 받지 않으므로 여러분은 이런 것을 공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승님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의 신실함과 여러분 스스로 성인聖人으로 진보하기 위한 명상 수행만을 받아들입니다.

5계

1. 살아 있는 모든 존재를 해치지 마라.¹⁾
2.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지 마라.
3.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취하지 마라.
4. 성性적으로 그릇된 행동을 하지 마라.
5. 중독 물질을 취하지 마라.²⁾

1) 이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건 채식을 해야 합니다. 육류·유제품·어류·가금류·계란(유정란이나 무정란 모두)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2) 이에는 술·마약·담배·도박·음란물, 그리고 지나치게 폭력적인 영화나 서적, 비디오 게임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독극물이 포함됩니다.

“완전한 성인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완전한 인간은 완전한 성인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반쪽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에고를 가지고 주저함 속에서 일을 하고, 자신의 즐거움과 체험을 위해 신이 이 모든 것을 안배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분리합니다. 우리는 만사를 큰일로 만들어 그에 따라 자신과 남을 판단하고, 그 결과 신이 할 일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함으로써 고통을 당합니다. 알겠습니까? 사실 신은 우리 내면에 있는데 우리가 신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즐기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남들에게 “그래선 안 된다.”고 하고 우리 자신에게 “이걸 해선 안 된다.”고 말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왜 비건 채식을 해야 될까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 내면의 신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칭하이 무상사~

“우리가 한순간만이라도 행동과 말과 생각이 순수하다면 모든 신들과 수호천사들이 우리를 성원할 것입니다. 그 순간 온 우주가 우리 것이며 우리를 성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림할 왕위가 그곳에 있습니다.”

~칭하이 무상사~

비건 채식의 이로움

본 협회 회원들이 정리한 자료

관음법문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생 비건 채식을 해야 합니다. 식물성 식품은 괜찮지만, 계란을 비롯한 어떤 동물성 식품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생의 생명을 빼앗지 마라(不殺生), 즉 “죽이지 말지어다(Thou shalt not kill).”라는 첫째 계율에서 기인합니다.

다른 생명을 죽이지 않고 해치지 않으면 그 생명에게 이롭다는 것은 다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은,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게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이 이롭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업의 법칙 때문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인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싶은 욕구를 채우려고 여러분이 죽이거나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생하게 만들면 여러분은 업의 빚을 지게 됩니다. 이 빚은 결국 갚아야만 합니다.

사실상 비건 채식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빚지고 있던 무거운 업장이 줄어들면서 우리는 기분이 홀가분해지고,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며, 미묘하고 새로운 천상의 세계를 내면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는 여러분이 지불한 대가에 비하면 대단히 값진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육식을 반대하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겠

지만, 이 외에도 비건 채식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건 모두 상식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건강과 영양, 생태계와 환경, 윤리와 동물의 고통, 세계 기아 등의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건강과 영양

인간의 진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 조상들은 원래 비건 채식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육식은 인간의 신체 구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헌팅턴(G. S. Huntington) 박사는 한 비교 해부학 논문에서 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육식동물은 대장과 소장이 짧으며, 특히 육식동물의 대장은 곧고 평평한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채식동물은 대장과 소장이 모두 깁니다. 육류는 섬유질이 적고 단백질의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영양분을 흡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식동물의 장이 채식동물의 장 보다 짧은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채식동물처럼 대장과 소장이 다깁니다. 인간의 장의 길이는 약 28피트(8.5m)에 달하는데, 소장은 여러 겹으로 겹쳐 있고 소장 벽은 주름이 많고 ~~울퉁불퉁~~합니다. 인간의 장은 육식동물보다 길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고기는 장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며, 그 결과 고기가 부패하여 독소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독소들은 결장암의 원인과 관련이 있으며, 체내의 독소 제거를 담당하는 간에도 부담을 줍니다. 이로 인해 간경화와 간암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육류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요소와 유로키나제 단백질은 심장에 부담을 주어 심장 기능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쇠고기 1파운드에는 유로키나제 단백질이 14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살아 있는 세포를 유로키나제 단백질 용액에 넣으면 세포의 대사 기능이 저하됩니다. 또한 육류에는 섬유소와 섬유질이 부족한데, 섬유질이 부족하면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변비가 직장암, 또는 치질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육류에 있는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 역시 심장 혈관성 질환을 일으킵니다. 심장 혈관성 질환은 미국의 사망 원인 1위로 꼽히고 있으며, 최근에는 포모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망 원인 제2위는 암입니다. 실험 보고서에서는 불에 태우거나 구운 육류에는 치명적인 발암 물질인 메칠클란트렌Methylcholanthrene이라는 화학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육류가 깨끗하고 안전하며 도살장에서 검역을 거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엄청난 양의 소·돼지·닭이 판매용으로 도살되고 있기 때문에 한 마리씩 검역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 고기 안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니, 한 마리씩 검역하는 건 말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현재 육류 생산업자들은 동물의 머리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머리만 자르고 다리에 병이 있으면 다리만 자릅니다. 병에 걸린 부분만 없애고 나머지 부분은 판매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명한 채식인인 켈로그 박사(Dr. J. H. Kellogg)는 “채식을 하게 되면 그 음식이 어떤 병으로 죽었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매우 즐

겁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점은 바로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성장 호르몬 등을 사료에 섞어 동물에게 먹이거나 동물에게 직접 주사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동물의 고기를 먹게 되면 그 약물들이 체내에 흡수되어 사람들이 항생제를 복용했을 때 육류에 들어 있던 항생제의 내성으로 약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채식을 하면 영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미국의 외과 전문의인 밀러 박사(Dr. Miller)는 포모사에서 40년 동안 진료를 하면서 포모사에 병원을 세워 병원 내의 모든 환자와 직원들까지도 채식을 하도록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인해 의약품은 많이 발전했지만 그건 병만 치료할 뿐이지, 우리의 건강은 음식이 유지시켜 줍니다. 식물의 영양은 육류보다 더 직접적입니다. 사람들은 동물을 먹지만 그 동물의 영양 공급원은 식물입니다. 거의 모든 동물은 수명이 짧고 사람이 가진 대부분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발병 원인은 병든 동물을 먹어서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식물에서 직접 영양을 섭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밀러 박사는 곡류·콩·채소만 먹어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성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이고 식물성 단백질은 불완전 단백질이니까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식물성 단백질에도 완전 단백질이 있으며, 불완전 단백질 식품을 몇 가지 섞어 먹으면 완전 단백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1988년 3월 미국 영양학협회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미국

영양학협회의 견해로 보자면 적절히 배합된 채식은 건강에 이롭고 영양학적으로 적합하다.”

어떤 사람들은 종종 육식하는 사람이 채식하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 예일 대학의 어빙 피셔(Irving Fisher) 교수는 채식하는 사람 32명과 육식하는 사람 15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채식하는 사람이 육식하는 사람보다 지구력이 훨씬 뛰어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오랫동안 팔을 들고 있게 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아주 명백했습니다. 육식하는 사람은 15명 중 두 명만이 15분에서 30분까지 팔을 들고 있을 수 있었지만 채식하는 사람은 32명 중 22명이 15분에서 30분까지 팔을 들고 있었고, 15명이 30분 이상, 9명이 1시간 이상, 4명이 2시간 이상 그리고 1명이 3시간 이상 팔을 들고 있었습니다.

많은 장거리 선수들은 경기에 앞서 비건 채식 혹은 채식을 합니다. 비건 채식과 채식요법 전문가인 바바라 무어 박사(Dr. Barbara Moore)는 110마일을 27시간 30분에 완주했습니다. 56세의 한 여성의 젊은이들의 기록을 모두 경신한 것입니다. 그녀는 “끼니마다 채식하는 사람이 신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맑으며 청정한 생활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건 채식을 하면 음식에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을까?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필요한 칼로리의 4.5%를 단백질로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밀에는 칼로리의 17%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있고, 브로콜리에는 45%, 쌀에는 8%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식을 하지 않아도 쉽게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고지방 식

사로 인해 야기되는 심장병과 온갖 종류의 암을 비롯한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부수적인 이로움을 주는 비건 채식은 분명 최상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류 및 포화지방이 많이 함유된 동물성 식품의 섭취가 심장병·유방암·결장암·뇌졸중과 관련 있다는 사실은 이미 실험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저지방식인 비건 채식으로 예방할 수 있고 심지어 치료도 할 수 있는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장 결석·전립선암·당뇨병·소화궤양·담석증·과민성 장 증후군·관절염·잇몸 질환·여드름·췌장암·위암·저혈당증·변비·계실염·고혈압·골다공증·난소암·치질·비만증·천식 등등. 흡연 외에 육식보다 개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없습니다.

생태계와 환경

육류를 얻기 위해 동물을 사육하면 그에 따라 열대우림 파괴, 지구온난화, 수질 오염, 물 부족 현상, 사막화, 에너지 자원의 오용, 세계적인 기아 등과 같은 결과가 초래됩니다. 땅·물·에너지·인력을 동원해 육류를 생산하는 것은 결코 지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1960년 이래 소를 기르는 방목장을 조성하기 위해 중미의 열대우림 25%가 태워졌습니다. 쇠고기를 재료로 한 4온스(약 113g)짜리 햄버거 하나를 만드는 데 55평방 피트(약 18m²)의 열대우림이 파괴되는 셈입니다. 이 밖에 소 사육은 지구 온난화를 발생시키는 세 종류의 가스를 대량으로 생성하며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쇠고

기 1파운드(약 450g 정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2,464갤런(약 9,000리터)의 엄청난 물이 필요합니다. 토마토 1파운드를 생산하는 데는 29갤런(약 100리터)의 물만 있으면 되고, 통밀빵 1파운드를 생산하는 데는 139갤런(약 530리터)만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쓰는 거의 절반가량의 물이 소와 기타 가축을 사육하는 데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축 사육에 쓰이는 자원으로 곡물을 재배하여 전세계 사람들에게 공급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공급받게 됩니다. 호밀을 가축 사료로 쓰지 않고 사람이 먹는다면, 1에이커에 호밀을 재배해 8배의 단백질과 25배의 칼로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에이커의 땅에 브로콜리를 재배하면 소를 사육했을 때보다 10배의 단백질과 칼로리, 나이 아신 등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는 수없이 많습니다. 만일 가축을 사육하는 땅에다 인류가 먹을 곡물을 재배한다면 세계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건 채식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좀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필요한 것만 섭취하고 과도한 살생을 줄이고 매 끼니를 위해 살아 있는 존재가 희생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의 기분도 훨씬 좋을 것입니다.

세계 기아

지구의 10억 인구가 기아와 영양실조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매년 4,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어린이들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세계 곡물 수확량의 1/3 이상이 사람들에게

공급되지 않고 가축 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생산된 곡물의 70%를 가축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곡물을 가축 사료로 쓰지 않고 사람들에게 공급한다면 아무도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동물의 고통

미국에서만 하루에 10만 마리가 넘는 소가 도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서양에서는 거의 동물들이 ‘공장식 사육장’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가장 적은 경비로 가장 많은 동물을 사육하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동물들은 비좁은 축사에서 제 모습을 잃은 채 오직 사료를 살코기로 바꾸는 기계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 대다수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도살장에 한 번이라도 가 보면 평생 비건 채식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레오 톨스토이는 “도살장이 존재하는 한 전쟁터도 존재할 것이다. 채식은 인도주의에 대한 엄격한 시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살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른 체하지는 않지만 사회의 지원 속에 일상적으로 고기 먹는 습관을 기르며, 우리가 먹는 동물이 어떤 일을 겪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인들과 그 밖의 사람들

유사 아래로 채소는 인간의 천연 식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

다. 초기 그리스와 히브리 신화에 보면 원래 사람들은 과일만 먹었으며, 고대 이집트의 지혜로운 성직자들도 결코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플라톤·디오게네스·소크라테스와 같은 수많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들 또한 모두 채식을 옹호했습니다.

인도의 석가모니불은 그 어떤 살아 있는 중생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원리, 즉 아힘사Ahimsa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다른 중생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육식은 후천적인 습관에 불과할 뿐 우리는 육식을 하려는 욕구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 “대저 육식을 하는 자는 자비의 종자種子가 끊어지리라.” “고기를 먹는 자들은 서로를 죽이고 잡아먹는다. 이 생에서는 내가 너를 먹고, 다음 생에는 네가 나를 먹는다. 이런 양상이 영원히 계속되니 그런 이들이 어찌 삼계三界(또는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초기의 많은 도교 수행자와 기독교인과 유태인들도 채식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나니 너희 먹을 것이 되리라(창세기 1:29).” 성경에는 육식을 금하는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창세기 9:4).” “하느님이 말씀하시되 누가 너희에게 수소와 암염소를 죽여 제물로 바치라고 했느냐? 그 무고한 피로 물든 손을 씻으라. 그래야 너희 기도를 들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손은 피투성이로 얼굴을 돌리리라. 회개하라. 그래야 너희를 용서하리

라(이사야 1:11-16).”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성 바오로는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로마서 14:21).”

최근 역사학자들은 예수의 생애와 그 가르침에 대해 새롭게 밝힌 고대 서적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는 말하기를 “동물의 살을 먹는 자는 자기 자신의 무덤이 될 것이라.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나니 죽이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요, 산 것을 죽여 그 고기를 먹는 자는 죽은 사람의 고기를 먹는 것이라.”라고 했습니다.

인도 종교에서도 육식을 금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산 것을 죽이지 않고는 고기를 얻을 수 없다. 중생을 해치는 자는 결코 신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육식을 피하라(힌두교 계율).”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도 죽은 동물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선사인 한산자寒山子도 강력히 육식을 반대하는 시를 썼습니다. “총총히 시장에서 어육을 사 들고 와 쳐자를 먹이는구나. 그대의 목숨을 부지하는 데 굳이 살생이 필요할까? 이치에 맞지 않구나. 극락 인연은 없어지고 스스로를 지옥의 쓰레기로 만드리니!”

많은 유명한 작가·예술가·과학자·철학자·저명인사들이 채식과 비건 채식을 했습니다. 다음은 채식의 중요성을 역설한 인물들입니다. 석가모니불·예수 그리스도·마호메트·송카파·아리스토텔레스·베르길리우스·호라티우스·플라톤·오비디우스·페트라르카·피타고라스·소크라테스·윌리엄 셰익스피어·볼테르·라빈드라나트 타고르·레오 톨스토이·아이작 뉴턴·경·찰스 다윈·알버트 아인슈타인·알베르트

슈바이처·니콜라 테슬라·레오나르도 다 빈치·벤저민 프랭클린·마하트마 간디·압둘 칼람·야네즈 드르노프세크·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비건 채식인, 테니스)·칼 루이스·파보 누르미·에드워 C. 모제스·지오르지아 푸만티·토비 맥과이어(비건 채식인)·나탈리 포트만·레오나 루이스·마이클 잭슨·브라이언 그린·존 로빈스(운동가, 작가)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채식이 사람의 성격에 가져다 주는 변화와 정화 효과는 인류에게 대단히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채식을 택하는 것은 매우 상서롭고 평화로운 것이다.” 이는 고금 성현들과 저명인사들의 공통된 충고입니다.

질의응답

질문(이하 Q): 동물을 먹는 것이 살생이라면 채소를 먹는 것도 살생 아닙니까?

칭하이 스승(이하 A): 식물을 먹는 것도 살생이며 약간의 업을 초래 합니다. 그러나 그 업장은 지극히 적습니다. 매일 2시간 30분씩 관음 법문을 수행하면 이런 업장은 씻을 수 있습니다. 안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의식이 가장 낮고 고통이 가장 적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식물은 90%가 수분이라서 의식 수준이 매우 낮고 고통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또 채소를 먹을 때 그 뿌리를 자르지 않고 가지나 잎을 따서 먹으면 그들의 무성 생식을 돋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식물에게도 이로운 거지요. 그래서 원예가들은 가지치기를 해주면 식

물이 더 크고 아름답게 자란다고 말합니다.

과일나무를 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과일은 익으면 향기로운 냄새와 아름다운 색깔, 달콤한 맛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곳곳에 씨앗을 퍼트리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지요. 만일 우리가 과일을 따먹지 않으면 그 과일은 너무 익어서 땅에 떨어져 썩게 됩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은 위에 있는 나무에 가려 햇빛을 못 받고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그들에게도 아무 고통이 없습니다.

Q: 대부분 사람들이 채식하는 사람은 키가 작고 마르며, 육식하는 사람은 키가 크고 몸집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A: 채식한다고 해서 꼭 마르고 키가 작지는 않습니다. 균형 있는 식사를 한다면 크고 튼튼하게 성장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끼리·소·기린·하마·말 등과 같이 몸집이 큰 동물들도 채소와 과일만 먹습니다. 그들은 육식동물보다 훨씬 더 힘이 세면서도 아주 착하고 인간에게 이로움을 줍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는 동물은 굉장히 난폭하고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인간이 동물을 많이 먹게 되면 동물적 본능과 성질의 영향을 받습니다. 육식하는 사람들이라고 꼭 키가 크고 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평균 수명이 더 짧습니다. 에스키모인은 거의 고기만 먹지만 그들이 키가 크고 강합니까? 또 장수합니까? 이 점을 여러분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Q: 채식하는 사람이 계란을 먹을 수 있습니까?

A: 안 됩니다. 계란을 먹는 것도 살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업적으로 파는 계란이 무정란이라서 그런 계란을 먹는 건 살생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그 계란은 수정에 적합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계란에서 닭으로 발육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 안에는 고유의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난세포 외에 다른 세포는 왜 수정이 안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계란에 단백질·인燃과 같은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백질은 두부로 섭취할 수 있고, 인은 감자 같은 여러 채소에서 섭취하면 됩니다.

예로부터 많은 큰스님들이 고기나 계란을 전혀 먹지 않고도 장수한 것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인광대사印光大師는 공양 때마다 나물 한 그릇에 밥만 조금 먹고도 80세까지 살았습니다. 더구나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심장 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 질환은 미국과 포모사에서 사람들을 죽게 하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러니 거의 모든 환자가 계란을 먹는 사람이라는 건 놀라운 게 아닙니다!

Q: 돼지나 소·닭·오리 등과 같은 가축들은 사람이 기르는 건데, 왜 먹어서는 안 됩니까?

A: 그렇다면 아이들을 기른다고 부모에게 자식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까? 모든 생물은 살 권리가 있으며 어느 누구도 이 권리를 빼앗으면 안 됩니다. 홍콩 법률에선 자살도 범죄입니다. 그러니 다른 생명을 죽이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Q: 동물은 본래 사람들에게 먹히도록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잡아 먹지 않으면 이 세상은 동물 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A: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여러분이 동물을 죽이기 전에 그들에게 잡아먹히고 싶은지 아닌지 물어봤습니까? 모든 생명은 살고 싶어하고 죽는 걸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싶지 않은데 동물이 왜 인간에게 먹혀야 합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출현한 건 겨우 수만 년밖에 안 됐지만, 많은 동물이 인간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동물들이 이 세상에 치밀 정도로 많았습니까? 생물은 자연스럽게 생태적 평형을 유지합니다. 먹을 게 모자라고 공간이 부족하면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어 동물의 수는 적정 수준을 유지합니다.

Q: 제가 왜 비건 채식을 해야 합니까?

A: 나는 내 안에 계신 신이 원하기 때문에 비건 채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육식은 죽임을 원치 않는 우주의 기본 원리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우리 자신은 살해되고 싶지 않고 도둑맞고 싶지 않으면서 우리가 다른 존재에게 그렇게 한다면, 그건 우리의 뜻에 반하는 행위이며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남을 해치는 모든 일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니까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물어뜯지도 않고 칼로 찌르지도 않듯이 여러분은 살생을 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살생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므로 우리는 살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구속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모든 생명에게로 확장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육신에 국한되지 않고 동물의 생명과 모든 생물의 생명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더욱 용대하고 위대하며 행복하고 무한하게 합니다. 됐습니까?

Q: 비건 채식에 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비건 채식이 어떻게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까?

A: 예. 이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굶주림과 식량 부족, 또는 국가 간의 식량 분배가 불균등해지면 그 국가의 경제 문제는 더욱 위기에 처해집니다. 여러분이 비건 채식에 관한 잡지나 연구 보고서를 읽어 보면 이 점을 잘 알 것입니다. 고기를 얻으려고 소와 동물을 키우는 것은 모든 면에서 우리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적어도 제3세계에서 굶주림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나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한 미국인이 이런 연구를 해서 책을 썼습니다. 아무 서점이나 가서 비건 채식과 식품 제조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읽어 보십시오. 존 로빈스(John Robbins)가 쓴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Diet For a New America)』를 읽어 보십시오. 그는 유명한 아이스크림 회사 재벌이었지만 비건 채식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으며, 가문의 전통과 사업에 반대되는 비건 채식 서적을 썼습니다. 그는 엄청난 돈과 명성과 사업을 잃었지만, 진리를 위해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책은 아주 훌륭합니다. 비건 채식에 관한 많은 정보와 사실을 알려 줍니다. 이 밖에도 비건 채식이 어떻게 세계 평화에 공헌 할 수 있는지를 알려 주는 책과 잡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소를 먹이느라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소 한 마리가 우리의 한 끼 밥상에 오르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단백질·의약품·물·인력·자동차·트럭·도로 건설과 수십만 에이커의 땅이 소모되었는지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든 물자가 미개발 국가에 골고루 나누어진다면 굶주림 문제는 해결됐을 것입니다. 지금 어떤 국가가 식량 부족을 겪는다면 자국민을 위해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자면 이런 것은 좋지 않은 인과를 만듭니다. 알겠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리라.”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먹기 위해 죽인다면 다음번이나 다음 생에는 우리 또한 다른 형태의 먹이로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지요. 우리는 이처럼 똑똑하고 문명도 발달했는데 우리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이웃나라가 왜 고통 받는지 그 원인을 모릅니다. 모두가 우리 입맛과 위장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 하나를 먹이고 살찌우기 위해 술한 생명을 죽이고 수많은 인간을 굶주리게 합니다. 동물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이해합니까? 이런 죄책감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우리 양심을 억누르게 되며, 암이나 결핵·에이즈와 같은 불치병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게 됩니다. 왜 여러분의 나라 미국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미국이 세계에서 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것은 미국인들이 쇠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나라 보다도 많이 먹지요. 왜 중국이나 공산국가에서는 암 발병률이 낮은지 그것도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그들에겐 그만큼 많은 고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합니까? 이건 연구 보고서 내용이지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니다. 알겠습니까? 나를 탓하지 마십시오.

Q: 비건 채식을 하면 영적으로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A: 당신이 이런 질문을 해주어서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당신이 오로지 영적으로 이로운 면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주의를 기울인다는 뜻이니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비건 채식에 대해 질문할 때 건강이나 식이요법이나 체격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비건 채식이 영적인 측면에서 주는 이로움은 매우 깨끗하고 비폭력적이라는 점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죽이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건 사람만 죽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신이 모든 동물을 우리와 친구가 되게 하고, 우리를 들풀에 하려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신이 우리에게 동물을 돌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은 그들을 돌보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백성을 다스릴 때 그 백성을 잡아먹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무 백성도 없는 왕이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신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신께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신은 아주 명확히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신 외에 누가 또 신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 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신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시 신처럼 되고 다른 아닌 여러분 자신이 되도록 권하는 바입니다. 묵묵히 신을 생각한다는 것은 신을 승배하라는 뜻이 아니라 신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과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했다면 우리도 그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의 자녀니까요. 예수는 심지어 그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압니까?

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 왜 신을 숭배합니까? 왜 맹신합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숭배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마치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 여자가 누군지 알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은 보통 데이트도 안 해보고 결혼하지는 않는데, 왜 신을 맹목적으로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신에 대해 알도록 우리 앞에 나타나 달라고 신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따르고 싶은 신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비건 채식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비건 채식해야 합니다. 모든 과학적인 근거를 보더라도 우리는 비건 채식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경제적인 이유를 째 봐도 우리는 비건 채식을 해야 합니다. 모든 자비심의 이유에서도 우리는 비건 채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비건 채식을 해야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만약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번만이라도 비건 채식을 한다면 매년 굶주리고 있는 1,600만 명의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영웅이 되려면 비건 채식을 하십시오. 이런 술한 이유들을 위해서 말합니다. 설령 여러분이 나를 따르지 않거나 같은 법문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자신과 이 세상을 위해서 부디 비건 채식을 하십시오!

Q: 모든 사람이 다 식물을 먹게 되면 식량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넓이의 땅이라도 사람들에게 먹일 곡물을 재배한다면 동물에게 먹일 사료를 재배했을 때보다 14배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1에이커의 땅에서 소출된 식물은 80만 칼로리의 열량을 생산합니다. 그러나 이 식물을 동물에게 먹이면 동물의 고기에 선 겨우 20만 칼로리의 열량만 생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60만 칼로리의 열량이 손실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비건 채식은 분명히 육식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입니다.

Q: 채식인이 생선을 먹어도 무방합니까?

A: 생선을 먹고 싶다면 먹어도 되지만, 만일 여러분이 채식을 하고 싶다면 생선은 채소가 아니라는 걸 알아 두세요.

Q: 마음이 착한 게 중요하지 꼭 비건 채식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들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A: 정말 마음이 착하다면 어떻게 다른 중생의 살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생명이 그렇게 고통 받는 걸 보면 그 고기를 도저히 먹지 못해야 마땅합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자비롭지 못한 일인데, 착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연지대사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 몸을 죽이고 그 살을 먹는구나. 그보다 더 잔인하고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나쁜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 있는가? 그러고도 어떻게 스스로 선량하다고 할 수 있는가?”

맹자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그 살아 있는 것을 보고서는 그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고, 그 죽는 소리를 듣고서는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한다. 그러기에 군자는 푸줏간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다(『맹자』 양혜왕 편).”

인간의 지성은 동물에 비해 훨씬 높은데 우리는 온갖 도구를 이용해 동물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동물들은 원한을 품고 죽습니다. 그처럼 약한 동물을 괴롭히는 사람은 군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동물은 도살될 때 두려움과 원한을 느끼게 되고, 이 때문에 생겨난 유독한 물질이 육질 속에 그대로 남게 되어 먹는 사람에게 해가 됩니다. 또한 동물의 진동은 인간에 비해 낮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진동에 영향을 미쳐 지혜의 발달에 해를 줍니다.

Q: 이른바 ‘방편 채식’을 해도 괜찮습니까? (방편 채식이란 육식을 철저히 금하지는 않고, 채소와 고기가 섞여 있는 반찬에서 채소만 먹는 경우를 말합니다.)

A: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채소를 독약에 담갔다가 꺼내면 그 독이 없어집니까? 『열반경』에서 마하가섭이 부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탁발을 할 때 고기가 섞인 채소 반찬을 받으면 그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그 음식을 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부처는 “물로 씻고 고기를 가려낸 다음에 먹을 수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위 내용으로 보건대 고기가 섞인 채소도 물로 씻지 않고서는 먹을 수 없었으니 고기를 먹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처와 그 제자들이 모두 채식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

람은 부처가 방편 채식을 했느니, 시주받은 고기를 먹었느니 하면서 부처를 중상모략하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은 불경을 충분히 안 읽었거나 읽었어도 경전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인도인들은 90% 이상이 채식을 합니다. 그들은 노란 승복을 입은 탁발승을 보면 채식을 보시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보시할 고기도 없지만요.

Q: 예전에 어떤 스승이 “석가모니불이 돼지 족발을 먹고 난 후 설사가 나서 죽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A: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불은 어떤 버섯을 잘못 먹고 죽었습니다. 범어로 된 그 버섯을 그대로 직역하면 ‘돼지 밭’이 되는데, 그건 진짜 돼지 밭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과일을 ‘용안龍眼’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거지요. 이름으로 봐서는 식물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식물인 게 아주 많습니다. ‘용안’도 그렇고요. 범어로 이 버섯은 ‘돼지 빨’ 또는 ‘돼지의 기쁨’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다 돼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버섯은 옛날 인도에서 구하기 어렵고 아주 귀한 진미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처에게 그 버섯을 공양 올렸던 것입니다. 이 버섯은 지상에서는 찾을 수 없고 땅 밑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이 버섯을 구하려면 노련한 돼지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돼지가 이 버섯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이지요. 돼지는 냄새로 버섯을 찾으면 밭로 진흙을 파헤쳐서 캐 먹습니다. 그래서 이 버섯이 ‘돼지의 기쁨’, ‘돼지 빨’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이름은 똑같은 버섯

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대충 번역한 데다 사람들이 그 어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에 후세들이 많은 오해를 하게 돼 부처가 ‘고기 먹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Q: 육식을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은 자신들은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 먹는다면서 자신이 그 동물을 직접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옳습니까?

A: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육점 주인이 도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능가경』에서 부처는 “고기를 먹지 않으면 살생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고기 먹는 것과 살생하는 것은 똑같은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살생을 하기 때문에 자연재해와 인간이 만든 재앙이 닥치는 것입니다. 전쟁 또한 너무 많은 살생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Q: 어떤 사람들은 식물이 요소나 유로키나제와 같은 유독 물질을 형성하지는 않지만 과일이나 채소에 농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먹으면 우리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A: 농부들이 살충제와 DDT 같은 맹독성 농약을 작물에 뿌리면 암·불임증·간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DDT 같은 독극물은 지방에 퍼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동물 체내의 지방층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기를 먹으면, 그 동물이 성장하는 동안 동물 지방에 저장된 고농축 농약과 다른 독극물을 모두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 몸에 쌓인 DDT 양은 과일이나 채소·곡물에 들어 있는 독

성의 13배나 됩니다. 과일 표면에 있는 농약은 물로 씻을 수 있지만, 동물의 지방층에 쌓인 농약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농약은 누적되기 때문에 축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먹이 사슬의 최종 소비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아이오와 대학의 실험에 따르면, 인간의 몸에서 발견된 농약은 거의 다 고기를 먹어서 생긴 것이며, 채식하는 사람의 몸속에 쌓인 농약은 육식하는 사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실 육류에는 농약말고도 다른 독소들이 있습니다. 동물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촉진하거나 고기 색깔과 맛·육질을 변화시키고 쉽게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화학 물질이 혼합된 사료를 먹입니다.

예를 들면 질산염으로 만든 방부제는 독성이 아주 강합니다. 1971년 7월 18일자 『뉴욕 타임즈』에는 “육식하는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잠재 위험은 연어에 들어 있는 세균, 고기에 들어 있는 농약 잔류물이나 방부제·호르몬·항생제·기타 화학 첨가물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 물질이다.”라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 밖에도 동물은 예방 주사를 맞는데, 그런 것들이 체내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과일이나 견과류·콩·옥수수에 들어 있는 모든 단백질은 물에 녹지 않는 불순물이 56%나 되는 육류 단백질보다 훨씬 깨끗합니다. 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이런 인공 첨가제가 암이나 다른 질병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기형아까지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임산부는 태아의 육체적·영적 건강을 보장해 주는 비건 채식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콩 종류에서 단백질을 섭취하고 과일과 야채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면 됩니다.

비건 채식: 전세계의 물 부족 위기에 대한 최상의 방안

물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자원이다. 그러나 스톡홀름 국제 물 연구소(SIWI)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지구의 수자원 남용으로 이미 다음 세대에는 물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다음은 2004년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린 SIWI의 연례 ‘세계 물의 주간’ 회의에서 보고된 놀랄 만한 사실들이다.

- * 지난 수십 년간 식량 생산 수치는 인구 증가 속도를 훨씬 앞질렀다. 현재 많은 세계인들은 그저 보다 많은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물을 고갈시키고 있는 셈이다.
- * 곡류를 먹여 키우는 식용 육류는 1킬로당 1만 kg에서 1만 5천 kg의 물을 필요로 한다. (이 수치는 효율 수치로 보자면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산업이 이런 효율로 운영된다면 진작에 다른 산업으로 대체되었을 것이다!)
- * 1kg의 곡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400~3,000kg의 물이 소모된다. (육류 생산에 필요한 용수의 5%)
- * 거의 90%에 가까운 용수가 식량 생산을 위해 사용된다.
- * 이미 물이 부족한 호주와 같은 나라들은 사실상 육류의 형태로 물을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 * 개발도상국의 육식 인구는 하루 5천 리터(1,100갤런)의 물을 소비하는 반면 채식인들은 하루에 1천 리터에서 2천 리터(200~400갤런)의 물을 소비한다. (영국『가디언』지 2004년 8월 23일자 보도)

SIWI 보고서 외에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아마존 우림에 콩 재

배를 위해 개간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콩들은 쇠고기가 될 소 떼를 먹이는 데 들어간다. 만약 이 콩들이 인류에게 직접 돌아간다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많은 동수들이『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 내용 가운데 ‘비건 채식의 이로움’에서 스승님이 말씀하신 육류 식품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떠올릴 것이다. “육류를 얻기 위해 동물을 사육하는 것은 항상 결과가 뒤따릅니다. 열대 우림 파괴, 지구의 온난화, 수질 오염, 물 부족 현상, 사막화 현상, 에너지 자원의 오용, 그리고 세계적인 굶주림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육류를 생산하기 위해 땅과 물·에너지·인력을 사용하는 것은 지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물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인류가 세계를 먹여 살리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며, 비건 채식은 바로 이러한 요구에 부합된다.

자료 관련 사이트:

<http://www.worldwatercouncil.org/>

<http://news.bbc.co.uk/2/hi/science/nature/3559542.stm>

<http://news.bbc.co.uk/1/hi/sci/tech/2943946.stm>



- 쇠고기 1인분 – 1,200갤런 이상의 물 소비
- 닭고기 1인분 – 330갤런의 물 소비
- 두부, 쌀, 채소로 구성된 비건 채식 한끼
– 98갤런의 물 소비

비건 채식인을 위한 희소식

꼭 필요한 식물성 단백질

비건 채식은 우리의 수행에 매우 이로울 뿐 아니라 우리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영양을 위해서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중요한 식물성 단백질이 결핍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단백질에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있습니다. 콩·병아리콩·깍지완두는 식물성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일부 식물입니다. 비건 채식을 한다고 해서 채소만 요리해 먹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을 위해서는 단백질 또한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밀러 박사는 평생 채식을 하였고 약 40년간 대만에서 의학을 연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는데, 그는 우리가 곡물과 콩·과일·채소만 먹어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며, “두부는 뼈 없는 ‘고기’인 셈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콩은 매우 영양이 풍부합니다. 한 종류의 음식만 먹을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콩을 먹는다면 보다 오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비건 채식 고기 요리를 하는 것은 고기 요리를 준비할 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고기 대신 채식 닭고기·채식 햄·채식 고기 같

은 비건 단백질 식품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를테면 ‘셀러리를 곁들인 고기 튀김’이나 ‘계란 김국’은 ‘셀러리를 곁들인 채식 고기 튀김’이나 ‘두부피 김국’으로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이런 비건 단백질 식품을 쉽게 구할 수 없다면 가까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로 연락해서 비건 채식 식당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식 요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 발행한 『무상 주방』이나 그 밖의 비건 채식 요리책을 참고하면 됩니다.

전세계 비건 채식/ 채식 식당에 대한 정보를 구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1>

<http://www.lovinghut.com/index.php>

다음은 참고할 만한 일부 비건 채식 식당과 비건 식품 회사입니다.

전세계 비건 채식 식당

(동수 운영)

북아메리카

캐나다

밴쿠버

◆ 러빙헛

Vancouver, BC, V5Z 1E9

Tel: 1-604-569-3196

email: vancouver@lovinghut.ca

<http://vancouver.lovinghut.ca/>

토론토

◆ 러빙헛

95 Enlinton Ave West Toronto,
Ontario M6C 2C4

Tel: 416-782-4449/ 916-0880

email: toronto@lovinghut.ca

lovinghuttoronto@gmail.com

미국

애리조나

◆ 러빙헛

3515-A W. Union Hills Drive,
Glendale AZ 85308
Tel: 1-602-9780393
email: phoenix@lovinghut.us

캘리포니아 - 알함브라

◆ 러빙헛

621 W. Main Street, Alhambra, CA 90801
Tel: 1-626-2892684
Fax: 1-775-6288037
email: alhambra@lovinghut.us

캘리포니아 - 오렌지카운티

◆ 러빙헛 (헌팅턴비치)

19891 Brookhurst Street
Huntington Beach, CA 92646
Tel: 1-714-962-6449
email: huntingtonbeach@lovinghut.us

◆ 러빙헛 (라데라)

27522 Antonio Pkwy., Ste P2
Ladera Ranch, CA 92694
Tel: 1-949-365-1077

◆ 러빙헛 (오렌지)

237 S. Tustin St., Orange, CA 92888
Tel: 1-714-464-0544
email: orange@lovinghut.us

◆ 러빙헛 (업랜드)

903-b Foothill Blvd, Upland, CA 91786
Tel: 1-909-982-3882
email: upland@lovinghut.us

캘리포니아 - 샌디에이고

◆ 러빙헛

1905 El Cajon Blvd., San Diego,
CA 92104
Tel: 1-619-683-9490
email: sandiego@lovinghut.us

캘리포니아 - 팔리앨토

◆ 러빙헛

165 University Ave, Palo Alto, CA 94301

Tel: 1-650-3215588

캘리포니아 - 샌프란시스코

◆ 러빙헛

1365 Stockton St., San Francisco,
CA 94133
Tel: 1-415-3622199
email: sf_chinatown@lovinghut.us

캘리포니아 - 새너제이

◆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Vegetarian House

520 East Santa Clara Street,
San Jose, CA 95112
Tel: 1-408-292-3798
email: info@vegetarianhouse.us
<http://Godsdirectcontact.com/vegetarian/>

◆ 러빙헛 (밀피타스)

516 Barber Lane, Milpitas, CA 95035.
Tel: 1-408-9430250
email: milpitas@lovinghut.us

◆ 러빙헛 (오크리지)

925 Blossom Hill Rd, San Jose
CA 95123-1294
Tel: 1-408-229 2795
email: sanjose@lovinghut.us

메사추세츠

◆ 러빙헛 (보스턴)

415 Chandler Street Worcester, MA 01602
Tel: 1-508-459-0367
email: worcester_chandler@lovinghut.us

뉴욕

◆ 러빙헛

348 7th Ave, New York NY 10001
Tel: 1-212-760-1900 (1902)
email: newyorkcity@lovinghut.us

텍사스

◆ 러빙헛 (휴스턴)

2825 S. Kirkwood Rd,
Houston Texas 77082

Tel: 1-281-531-8882
 email: houston@lovinghut.us

조지아

◆ 러빙헛 (노크로스)
 6385 Spalding Drive, Suite E,
 Norcross, GA 30092
 Tel: 1-678-421-9191
 email: georgia@lovinghut.us

◆ 러빙헛 (카네소)

2700 Town Center Drive,
 Suite 136, Kennesaw, GA 30144
 Tel: 1-770-429-0666
 email: kennesaw_01@lovinghut.us

워싱턴

◆ 러빙헛 (시애틀)
 1228 South Jackson St, Seattle,
 WA 98144
 Tel: 1-206-726-8669
 email: seattle@lovinghut.us

일리노이

◆ 러빙헛 (시카고)
 5812 North Broadway, Chicago, IL 60660
 Tel: 1-773-275-8797
 email: chicago@lovinghut.us

플로리다

◆ 러빙헛 (올랜도)
 2101 E, Colonial Drive, Orlando,
 FL 32803.
 Tel: 1-407-894 5673
 email: orlando@lovinghut.us

◆ 러빙헛 (케이프코랄)

1918 Del Prado Blvd S. #3 Cape Coral, FL
 Tel: 1-239-424-8433
 email: capecoral@lovinghut.us

뉴저지

◆ 러빙헛
 538 State Route 10, Ledgewood,
 NJ 07852
 Tel: 1-862-251-4611

email: ledgewood@lovinghut.us

남아메리카

파나마

◆ 러빙헛
 Entrada de Gorgona Via
 InteramericanaDistrito de Chame,
 Provincia de Panama
 Tel: 507-240-5621

유럽

오스트리아

◆ 러빙헛
 Neubauguertel 38/5, A-1070
 Vienna, Austria
 Tel: 43-129-39182
 email: Neubau@lovinghut.at
<http://www.lovinghut.at>

◆ 러빙헛

Favoritenstr. 156, A-1100
 Vienna, Austria
 Tel: 43-129-38470
 email: Favoriten@lovinghut.at
<http://www.lovinghut.co.at>

독일

◆ 러빙헛 (하노버)
 Calenberger Str. 11, 30169
 Hannover, Germany
 Tel: 49-176-24486837
 email: lovinghut.hannover@gmail.com
<http://www.lovinghut.de/hannover>

◆ 러빙헛 (뮌헨)

Margreider Platz 4, 85521
 Ottobrunn, Germany
 Tel: 49-89-61180617
 email: lovinghut@gmx.de
<http://www.lovinghut.de/muenchen>

프랑스

◆ 러빙헛 (파리)

92, boulevard Beaumarchais
75011-PARIS-France
Tel: 33-1-48064384
<http://www.lovinghut.fr/>

스페인

◆ 러빙헛 (말라가)

Calle Conde Altea, 44, Bajo,
46005 Valencia, Spain
Tel: 34-96-3744-361
<http://lovinghut.es>

영국

◆ 러빙헛 (런던 캠든)

3 Plender St, London, NW1 0JT
Tel: 44-20-7387-5710
email: camden@lovinghut.co.uk
<http://www.lovinghut.co.uk/>

◆ 러빙헛 (노퍽 노리치)

28 Cattle Market Street, Norwich, Norfolk,
NR1 3DY
Tel: 44-7845-282127
email: norwich@lovinghut.co.uk

체코 공화국

◆ 러빙헛

Truhlariska 20 110 00 Praha 1
Tel: 420-775-999376
email: info@lovinghut.cz
<http://www.lovinghut.cz>

◆ 러빙헛

Londynska 35 Praha 2-Vinohrady
Tel: 420-222-515-006/ 721-255-253
email: info@vegfood.cz
<http://www.vegfood.cz>

오세아니아

호주

브리즈번

◆ 러빙헛

Shop 2, 1420 Logan Rd, Mount Gravatt

Tel: 617-3219-4118

email: lovinghutbrisbane@gmail.com
<http://mtgravatt.lovinghut.com.au/>

캔버라

◆ Au Lac Vegetarian Restaurant

4/39 Woolley Street
Dickson, ACT 2602
Tel: 61-2-6262-8922

◆ Vegetarian House

Shop 7 Homeworld Shopping Centre,
Tuggeranong, ACT 2900
Tel: 61-2-6293 9788

멜버른

◆ La Panella Bakery

465 High Street, Preston Victoria 3072
Tel/ Fax: 61-3-9478-4443

시드니

◆ Happy Vegan Restaurant

11/68 John St, Cabramatta, NSW 2166
Tel: 61-2-9728-7052

카르디나

◆ One World Cuisine

Shop 7, 23 South Street,
Kardinya WA 6163, Australia (beside IGA)
Tel: 61-8-9331-6677
Fax: 61-8-9331-6699
email: enquiry@oneworldcuisine.com.au
<http://www.oneworldcuisine.com.au>

아시아

어울락(베트남)

<http://www.nhahangchay.com>
<http://www.comchayngon.com>

포모사(대만)

타이베이

◆ 러빙헛 (화이닝)

No.44, Huaining St., Jhongjheng District,
Taipei City 100, Formosa (R.O.C.)
Tel: 886-2-2311-9399

Fax: 2-2311-3999

◆ 러빙헛(위안만)

No. 3-1, Cingdao E. Rd.,
Jhongjheng District, Taipei City 100
Tel: 886-2-2391-3553/ 2391-3913

◆ 러빙헛(광푸)

No. 30, Lane 280, Guangfu S. Rd.,
Da-an District, Taipei City 106.
Tel: 886-2-27772711/ 2777-2737

◆ 러빙헛(NTU)

No. 169, Sec. 2, Sinhai Rd.,
Da-an District, Taipei City 106
Tel: 886-2-27369579/ 2736-9630

◆ 러빙헛(총샤오)

No. 6, Alley 1, Lane 217, Sec. 3,
Jhongsiao E. Rd., Da-an Dist.,
Taipei City
Tel: 886-2-2771-1365/ 2771-1352

◆ 러빙헛(송더)

No. 247, Songde Rd., Sinyi Dist.,
Taipei City
Tel: 886-2-23460036

◆ 러빙헛(네이후)

No. 15, Lane 411, Sec. 1, Neihu Rd., Taipei
Tel: 886-2-26270706

◆ 러빙헛(중허 징펑)

528, Jing Ping Road,
Chung Ho City, Taipei
Tel: 886-2-2242-1192

◆ 러빙헛(타이산)

198, Sec. 2, Mingjih Rd.,
Taishan Township, Taipei County 243
Tel: 886-2-85315689

◆ 러빙헛(반차오 위민)

No. 109, Yumin St., Banciao City, Taipei
Tel: 886-2-22582257

◆ 러빙헛(시즈 송펑인)

No. 26, Sec. 2, Sintai 5th Rd., Sijih City,

Taipei County 22175

Tel: 886-2-2641-5059

이란

◆ 러빙헛(신위에)

4F., No. 6, Lane 38, Sec. 2,
Minquan Rd., Yilan City, Yilan County 260
Tel: 886-3-9332992/ 935-6545

◆ 러빙헛(루어동 시위에)

No.156-1, Gongjheng Rd.,
Luodong Township, Yilan County 265
Tel: 886-39-573533

◆ 러빙헛(자오양)

115, Taishan Rd., Yilan City,
Yilan County 26052
Tel: 886-3-932-6724

화롄

◆ 러빙헛

No. 30, Datong St.,
Hualien City, Hualien County 970
Tel: 886-38-352-559

타오위안

◆ 러빙헛(중위안)

No. 172, Chung Pei Rd.,
Chungli City, Taoyuan County
Tel: 886-3-456-0686/ 3-456-0695
Fax: 3-436-9004

◆ 러빙헛(현중)

No. 325, Huanjhong E. Rd.,
Chungli City, Taoyuan County
Tel: 886-3-4623500/ Fax: 3-4623500

타이중

◆ 러빙헛

No. 266, Sec. 4, Hankou Rd., North
District, Taichung City 404
Tel: 886-4-22358629

장화

◆ 러빙헛(옹푸)

No. 39, Chen Lin Rd., Changhua City
Tel: 886-4-723-6450

Fax: 4-723-6438

◆ 러빙헛 (위안린 다동)

No. 250, Sec. 1, Datong Rd.,
Yuanlin Township, Changhua County 510
Tel: 886-4-8392661/ 839-2601

난토우

◆ 러빙헛 (차오둔)

No. 895, Hu Shan Road,
Cao Tun Township, Nantou County
Tel: 886-49-2300558
Fax: 49-230-0559

자이

◆ 러빙헛 (추이양)

No. 396, Chueiyang Rd., West
District, Chiayi City 600
Tel: 886-5-2289079/ 228-9077

타이난

◆ 러빙헛 (진화)

No. 142, Sec. 2, Jinhua Rd.,
South District, Tainan City
Tel: 886-6-2611593/ Fax: 6-2647590

◆ 러빙헛 (마더우)

No. 113, Singnan Rd., Madou
Township, Tainan County 721
Tel: 886-6-5710129/ 571-2799

가오슝

◆ 러빙헛 (잔젠)

No. 283, Chung Shan 1st Rd.,
Sin Sing District, Kaohsiung City
Tel: 886-7-285-6895
Fax: 7-285-7836

핑둥

◆ 러빙헛 (안신)

No. 130, Ansin 4th Side Lane,
Pingtung City, Pingtung County 900
Tel: 886-8-7225577/ 721-4700

타이동

◆ 러빙헛 (신성)

No. 259, XinSheng Rd., Taitung City 950

Tel: 886-89-350915/ 352-792

홍콩

◆ 러빙헛 (주통)

Shop 242-5, G/F, Amoy Plaza 2,
77 Ngau Tau Kok Road, Kowloon,
Hong Kong
Tel: 852-2751-1321
<http://www.lovinghut.com/hk/index.htm>

◆ 러빙헛 (완차이)

Shops B&C, G/F, The Hennessy, 256
Hennessy Road, Wan Chai, Hong Kong
Tel: 852-2574-3248

일본

◆ 러빙헛

2F, 6-15, Yotsuya Sanchoume
Shinjuku-ku, Tokyo 160-0004
Tel: 81-3-6807-9625

대한민국

서울

◆ 러빙헛 (신촌점)

서울 서대문구 청천동 33-10호 1층
Tel: 02-333-8088/ Fax: 02-333-8087

◆ 러빙헛 (아차산점)

서울 광진구 구의동 53-10
Tel: 02-453-2112/ Fax: 031-591-3313
<http://www.go5.co.kr/>

◆ 러빙헛 (양재점)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5-4
트원타워빌딩 101호
Tel: 070-8614-7953

◆ 러빙헛 (한남점)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7-92 2층
Tel: 02-3217-2153

◆ 러빙헛 (SM점)

서울시 강남구 개포4동 1229-10
Tel: 02-576-9637~8
Fax: 02-6008-9562
<http://www.smvege.co.kr>

◆ 사랑분식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30-5
Tel: 02-577-4012

◆ 오세계향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59
Tel: 02-735-7171
<http://www.go5.co.kr>

부산

◆ 러빙헛 (금곡점)

부산시 북구 금곡동 66-6
Tel: 051-363-6635

◆ 러빙헛 (동래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350-1(동래구청 앞)
Tel: 051-557-5858

◆ 러빙헛 (부산대점)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418-1
Tel: 051-518-0115

◆ 러빙헛 (부산 해운대점)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388-6
Tel: 070-8755-7979

◆ 러빙헛 (서면점)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197-1
Tel: 051-808-7718

대구

◆ 러빙헛 (대구교대점)

대구시 남구 대명동 1794-7
Tel: 053-622-7230

◆ 러빙헛 (대구 신매점)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 587-4
Tel: 053-793-4451/ Fax: 053-743-4430

◆ 러빙헛 (대구 아침사점)

대구시 동구 신천4동 366-13
Tel: 053-744-3373

대전

◆ 러빙헛 (신탄진점)

대전시 대덕구 석봉동 415-19
Tel: 042-934-6647

광주

◆ 러빙헛 (광주 문흥점)

광주시 북구 문흥동 1002-1
Tel: 062-265-5727/ Fax: 062-265-5727

울산

◆ 러빙헛 (울산대점)

울산시 남구 무거2동 630-22
Tel: 052-277-4870

◆ 러빙헛 (울산 달동점)

울산시 남구 달동 758-2
Tel: 052-267-7173/ Fax: 052-267-7178

◆ 러빙헛 (울산 하늘피리점)

울산시 남구 옥동 천호상가 586-2 1층
Tel: 052-261-1587

◆ 채식 사랑

울산시 중구 복산2동 185-4
Tel: 052-297-4844

제주

◆ 러빙헛 (제주 시청점)

제주시 이도2동 1767-27 1층
Tel: 064-751-3335/ Fax: 064-751-3335

◆ 러빙헛 (제주 중앙점)

제주시 이도1동 1387-3 1층
Tel: 064-759-6113

경기

◆ 러빙헛 (분당 수내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63-1
Tel: 031-713-0211

◆ 러빙헛 (수원 망포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322-3
Tel: 010-2918-0826

◆ 러빙헛 (안산 고잔점)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688-3
Tel: 031-475-5205

◆ 러빙헛 (안산 시동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320-4 101호
Tel: 031-408-6018

◆ 러빙헛 (의왕 청계점)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986-3 103호
Tel: 031-423-5203

◆ 러빙헛 (죽전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199-8 1층
Tel: 031-889-4860

강원

◆ 러빙헛 (원주점)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100-5 1층
Tel: 033-743-5393

충북

◆ 러빙헛 (벌티점)

충북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383-9
Tel: 070-8221-7778

◆ 러빙헛 (영동 1호점)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91-1 2층
Tel: 043-743-7597

◆ 러빙헛 (영동 2호점)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555-5
Tel: 043-744-3827

충남

◆ 러빙헛 (아산점)

충남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44-7
(나드리 주유소)
Tel: 041-544-2158

◆ 러빙헛 (온양점)

충남 아산시 온천동 1406
Tel: 041-549-1638

경북

◆ 러빙헛 (상주점)

경북 상주시 남성동 9-2
Tel: 054-536-9353

◆ 러빙헛 (안동 옥동점)

경북 안동시 옥동 788-1
한맥빌딩 106호(이마트 맞은편)
Tel: 054-841-5393

◆ 러빙헛 (안동 동문점)

경북 안동시 동문동 158-5
Tel: 054-841-9244

경남

◆ 러빙헛 (진주점)

경남 진주시 신안동 440-2

Tel: 055-748-9476

◆ 채식 생활

경남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1111-1
Tel: 055-884-5694

전북

◆ 러빙헛 (전주 삼천점)

전북 전주시 삼천동 1가 691-4
Tel: 063-229-6656

◆ 러빙헛 (전주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12-1 1층
Tel: 063-271-7122

◆ 러빙헛 (전주 서신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95-24
Tel: 063-274-7025

◆ 러빙헛 (전주 조은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01-11, 101호
Tel: 063-255-5589

◆ 러빙헛 (전주 진북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151-13
Tel: 063-255-6636

◆ 러빙헛 (전주 평화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893-1
Tel: 063-226-7388

◆ 자연에 채식 뷔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06
Tel: 063-255-8462

◆ 귀거래사

전북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 484-1
Tel: 063-636-8093

전남

◆ 러빙헛 (담양점)

전남 담양군 담면 지곡리 285-1
Tel: 061-383-5255

인도네시아

발리

◆ 러빙헛

Pertokoan Sudirman Agung B 12-A Jl.

PB Sudirman

Tel: 62-361-241-035 / Fax: 62-361-255368

email: light99@telkom.net

자카르타

◆ 러빙헛

The Plaza Semanggi, Lt. 3A, No. 3A
Kawasan Bisnis Granadha
Jl. Jend Sudirman Kav. 50,
Jakarta Pusat-12930
Tel: 62-21-2553-9369
<http://lovinghut.co.id/peta.shtml>

◆ 러빙헛 (Kemang Store)

Jl. Kemang Raya No. 130E,
Mampang, Jakarta Selatan-12730
Tel: 62-21-7197165

메단

◆ 러빙헛 (Medan Store)

Deli Plaza, Lt. Dasar, Blok A, No.1-4,
Jl. Guru Patimpus/ Putri Hijau
Medan, Samatera Utara
Tel: 62-61-4556214

목야카르타

◆ 러빙헛

Plaza Ambarrukmo, Lt. 3
Tamansari Foodcourt Counter B6
Jl. Laksda Adisucipto
Yogyakarta-55281, Jawa Tengah
Tel: 62-274-433-1254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러빙헛 (푸종)

15, Jalan Puteri 2/7, Bandar Puteri,
47100 Puchong, Selangor, Malaysia
Tel: 603-8062-7769 / Fax: 603-806-42138
<http://www.lovinghut.com/ml/index.htm>

태국

◆ 러빙헛

257 Charoenakhon Road,
Ground Floor Shop 11 Samrae,
Thonburi, Bangkok 10600, Thailand

Tel: 66-24769781/ 66-24766220

email: info@LovingHutThailand.co.th

<http://www.lovinghutthailand.com>

◆ 러빙헛

199/71 Soi 70/ 1 On-Nut,
Sinakarin Rd., Pawet 10240, Thailand
Tel: 66-27210320/ 66-83497709

싱가포르

◆ 러빙헛 (Raffles Institution)

1 Raffles Institution Lane, S 575954
Tel: 65-63538830

◆ 러빙헛 (Marsiling School)

12, Marsiling Road, Singapore 739110
Tel: 65-68941413 / Fax: 68946156

◆ 러빙헛 (Jalan Bukit Merah)

Block 161, Unit 01-3725 Bukit Merah Central,
Singapore 150161
Tel: 65-63774354

◆ 러빙헛 (ParkLane Store)

35 Selegie Road, #01-07 Parklane
Shopping Mall, Singapore 188307
Tel: 65-63380962

몽골

◆ 러빙헛 (칸울)

2nd Floor, Mongol Nekhmel Co Ltd, 2nd
Khoroo, Khan-Uul District, Ulaanbaatar
Tel: 976-11341896, 976-98080512

◆ 러빙헛 (чин게이테일)

3th Floor, Mars Trademarket, 2nd Khoroo,
Chingteitel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Tel: 976-91912063, 976-95940781

◆ 러빙헛 (푸드컬리지)

Student Dormitory of Food College, 2nd
Khoroo, Khan-Uul District, Ulaanbaatar
Tel: 976-99114373, 976-99237898

◆ 러빙헛 (반아풀)

Bichi Khoroool, Bayangol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Tel: 976-91912063, 976-95940781

스승의 사랑이 내 영혼에 드리워질 때
나는 깊게 거듭나지요.
그 이유는 묻지 마세요.
이유란 사랑의 논리가 아니니까요!

나는 온 우주의 입이니
모든 만물을 대신하여 소리쳐 알리리라.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당신이 이 생사운회를 멈출 때까지.
기도하나니, 자비로운 스승이시여!
이 모두를 끝내 주소서!

당신의 축복은 모든 이에게 흘러넘칩니다.
악한 이와 선한 이
아름다운 이와 추한 이
신실한 이와 형편없는 이에게
똑같이!
오, 스승님, 당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결코 부를 길 없어
그저 당신의 사랑 나의 가슴에 간직한 채
밤마다 함께 잠이 듭니다.

칭하이 무상사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발췌

간행물 안내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키고 일상생활에 영감을 주는 칭하이 무상사의 가르침이 현재 책,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 음악 오디오테이프, DVD·MP3·CD 등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출판된 책과 테이프 외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 가르침을 무료로 접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몇몇 웹사이트에서는 출판물 가운데 가장 자주 발행되는 뉴스잡지(아래의 관음 웹사이트 참고)를 선보이고 있고, 또 어떤 웹사이트는 스승님의 시와 깨달음을 전해 주는 감로법어, 강연 등을 비디오와 오디오 파일 형식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74개 이상의 언어로 된 「즉각 깨닫는 열쇠」 전본책자를 다운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sample/> (미국)

<http://sb.godsdirectcontact.net> (포모사)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download/index.htm> (오스트리아)

<http://www.Godsdirectcontact.us/com/sb/>

책

즉각 깨닫는 열쇠

칭하이 무상사 강연집.

어울락어(1~15), 중국어(1~10), 영어(1~5), 프랑스어(1~2), 핀란드어(1), 독일어(1~2), 헝가리어(1), 인도네시아어(1~5), 일본어(1~4), 한국어(1~11), 몽골어(1, 6), 포르투갈어(1~2), 폴란드어(1~2), 스페인어(1~3), 스웨덴어(1), 태국어(1~6), 티베트어(1).

즉각 깨닫는 열쇠-문답집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 중 문답 내용 수록.

어울락어(1~4), 중국어(1~3), 불가리아어(1), 체코어(1), 영어(1~2), 프랑스어(1), 독일어(1), 헝가리어(1), 인도네시아어(1~3), 일본어(1), 한국어(1~4), 포르투갈어(1), 폴란드어(1), 러시아어(1).

즉각 깨닫는 열쇠-1993년 세계 순회강연집 (6권 전집)

1993년 세계 순회강연 중에 하신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집.

영어, 중국어.

즉각 깨닫는 열쇠-특별 선집집

1992년 포모사 산디먼 선집 행사에서 하신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집.

영어, 어울락어.

사제지간의 편지

영어(1), 중국어(1~3), 어울락어(1~2), 스페인어(1).

신기한 감동

중국어(1~2), 어울락어(1~2).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어울락어, 한국어, 일본어, 태국어.

삶을 다채롭게

칭하이 무상사의 영적 가르침과 인용문 모음집.

영어, 중국어.

신은 모든 것을 들보신다-칭하이 무상사의 지혜 만화집

어울락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한국어.

후광이 너무 꼭 껴요!-칭하이 무상사의 깨달음이 담긴 유마집

영어/중국어.

쉽게 수행하는 비결

영어, 중국어.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평화의 길

1999년 유럽 순회강연 중에 하신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집.

영어, 중국어.

신과 인류의 이야기-성경 이야기를 통한 고찰

다양한 모임에서 스승님이 재해석해 주신 열세 가지 성경 이야기가 담긴 특별 선집.

영어, 중국어.

건강에 대한 깨달음-자연적이고 올바른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기

영어, 중국어.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있습니다

칭하이 무상사의 영적 가르침과 인용문 모음집.

이람어, 어울락어, 불가리아어, 체코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한국어, 몽골어, 폴란드어, 스페인어, 터키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감로법어

칭하이 무상사가 말씀하신 주옥같은 영원한 지혜.

영어/중국어, 스페인어/포르투갈어, 프랑스어/독일어, 한국어/영어.

무상 주방 (1)-전세계 채식 요리

동수들이 추천한 세계 각지의 진미·별미 요리집.

영어/중국어, 어울락어, 일본어.

무상 주방 (2)-가정식

영어/중국어.

음악으로 하나 된 평화의 세상

1998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수라인 강당에서 열린 자선 콘서트에 소개된 음악과 인터뷰 모음집.

영어/중국어/어울락어.

칭하이 무상사 예술 창작집

영어, 중국어.

S.M. 천의집 (6)

영어/중국어.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를 (1-2)

500페이지에 달하는 이 두 권짜리 책은 스승님께서 당신의 반려견들의 멋진 실생활 이야기를 담아 출판하신 것이다.

어울락어(합본), 중국어, 영어(합본),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스페인어, 폴란드어(합본).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아름다운 일러스트로 꾸며진 사진과 이야기가 담긴 이 책을 통해 칭하이 스승님은 동물의 내면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 비밀을 알려 주신다.

어울락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고귀한 아생

스승님이 직접 사랑의 마음으로 구성하고 사진을 찍은 이 책에는 아름다운 시와 숨이 멎을 듯한 멋진 사진들이 가득하다. 일지처럼 친밀한 이 이야기에서, 스승님은 호숫가를 텁텁한 이야기를 해주시며 등을 친구들의 타고난 고귀한 품성에 대해 알려 주신다. 이는 여태껏 들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

어울락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한국어.

천상의 예술

이 걸작품을 통해 저자는 영적 시각에서 예술 창작품을 천국의 진선미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신성과 공명하는 칭하이 무상사의 무한한 예술 세계로 초대되어 고양된 독자들은 시인의 깊은 감정, 화가의 섬세한 봇질, 디자이너의 독특한 발상, 그리고 음악가의 낭만적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위대한 영적 스승의 지혜와 자비심에 대해 알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

영어, 중국어.

삶과 의식에 관한 사색

아네즈 박사의 저서.

중국어.

시집**침묵의 눈물:** 칭하이 무상사 시집.

독일어/프랑스어, 영어/중국어, 어울락어,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한국어, 필리핀어.

무자시: 칭하이 무상사 시집. 어울락어, 중국어, 영어.**나비의 꿈:** 칭하이 무상사 시집. 어울락어, 중국어, 영어.**전생의 발자취:** 칭하이 무상사 시집. 어울락어, 중국어, 영어.**조약돌과 황금:** 칭하이 무상사 시집. 어울락어, 중국어, 영어.**잃어버린 기억:** 칭하이 무상사 시집. 어울락어, 중국어, 영어.

그 옛날: 청하이 무상사 시집. 어울락어, 중국어, 영어.

시공을 초월하여 (어울락어 노래 공연): CD & DVD.

황기로운 손길 (유명 가수가 어울락어로 부른 노래 공연): CD.

지난날과 지금 (어울락어 시 낭송): CD.

한밤의 꿈 (어울락어 노래 공연): CD & DVD.

사랑으로 보살펴 주세요 (어울락어 노래 공연): CD.

영원히 간직해 주세요 (어울락어 시 낭송): CD.

청하이 무상사 창작 가곡 모음집: (CD & DVD) 어울락어, 중국어, 영어.

사랑의 노래: (CD & DVD) 어울락어, 영어.

보석 시집 (저명한 어울락 시인들의 시를 어울락어로 낭송): CD 1, 2, & DVD 1, 2.

황금 연꽃 (어울락어 시 낭송): CD & DVD.

청하이 무상사의 음악 같은 음성으로 낭송한 톡민자악 선사의 아름다운 시를 감상할 수 있다. 스승님은 당신이 지으신 '황금 연꽃'과 '사요나라' 등 두 편의 시도 낭송하였다.

고대의 사랑 (어울락어 시 낭송): CD & DVD.

전생의 밭자취 (어울락어 시 낭송): 오디오테이프 & CD 1, 2, 3, DVD 1, 2(17개 언어 자막).

사랑의 전설로 가는 길 (저명한 어울락 시인들의 시를 어울락어로 낭송): 오디오테이프 & CD 1, 2, 3, 비디오테이프 1, 2.

잘 자라, 아기야: (CD) 영어.

***사랑의 전설로 가는 길, 고대의 사랑, 시공을 초월하여, 한밤의 꿈, 영원히 간직해 주세요, 지난날과 지금, 전생의 밭자취, 보석 시집, 황금 연꽃, 사랑으로 보살펴 주세요**는 시인이 직접 낭송하거나 곡을 붙여 노래한 것이다.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

청하이 무상사의 비디오테이프는 우리의 관점을 재정립해 주고 자신의 진아에 대해 일깨워 줍니다. 종종 유머를 통해 지혜를 전달하시는 스승님의 말씀과 몸짓은 우리 가슴에 따뜻한 웃음을 가져다주기도 합니다. 이 밖에 이런 강연들과 동수들에게 하신 말씀이 담긴 오디오테이프는 오가는 길에 즐거운 친구가 되어 줄 것입니다.

다음은 이 중 일부 목록입니다.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출판물을 구하려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강연.

Be Your Own Master: 미국 애틀랜타 단체명상.

The Invisible Passageway: 남아프리카 더반 강연.

The Importance of Human Dignity: 미국 뉴저지 단체명상.

신과의 교류: 포르투갈 리스본 강연.

How to Love Your Enemy: 포모사 산디먼 단체명상.

어린이의 순진함으로 돌아가라: 스웨덴 스톡홀름 강연.

내면의 보물을 찾는 법: 태국 치앙마이 단체명상.

Together We Can Choose a Bright Destiny: 폴란드 바르샤바 강연.

The Choices of Each Soul: 미국 로스앤젤레스 단체명상.

Walk the Way of Love: 영국 런던 단체명상.

Let Others Believe God the Way They Want: 미국 로스앤젤레스 단체명상.

음악 테이프 및 CD

스승님은 우리에게 불찬·시, 그리고 중국 지터·만돌린과 같은 전통 악기로 연주된 원곡 등을 선물하십니다.

많은 음악들을 오디오테이프와 CD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출판물을 구하려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불찬: 청하이 무상사의 명상 불찬. 1, 2, 3집.

성찬: 할렐루야.

스승님의 창작 연주곡: 1~9집.

덜시머·하프·피아노·중국 지터·디지털 피아노 등등으로 연주한 원곡.

DVD

184	미륵불과 여섯 아이들 / 이 세상의 실상	포모사 시후
240	이 세상을 새 시대로 이끌자	포모사 시후
260	이 세상 너머의 신비	미국 UN
356	신이 우리를 통해 봉사하게 하라	스위스 제네바 UN
389	청하이 무상사 창작 기곡 모음집	
396	자신을 울서하라	미국 프레몬트
400	월정의 밤(1, 2)	태국 방콕

401	인과의 신비	태국 방콕
467	이 세상의 고통은 무지에서 온다	싱가포르
474	마음을 따르라(1, 2)	프랑스 파리
493	임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자	독일 함부르크
512	속세에서 수행하는 법	포모사 시후
516	성공의 열쇠	포모사 시후
518	시바신의 112가지 집중법(1)	포모사 시후
531	전생의 발자취(1)	포모사 시후
532	전생의 발자취(2)	포모사 시후
562	신의식은 모든 것에 존재한다	캄보디아 레이징 센터
567	인생의 8대 근본 문제	포모사 시후
582	수행의 길을 굳게 결심하라	호주 시드니
588	스승님의 하탈라야 순례기(1, 2)	미국 로스앤젤레스
588B	과거와 미래의 비밀	미국 로스앤젤레스
600	비폭력의 진정한 의미	인도 푸나
608	수행 진보의 비결	미국 워싱턴 D.C.
626	각 영혼의 선택	미국 로스앤젤레스
638	자신을 최대한 발휘하라	미국 플로리다
645	신과의 교류(1, 2)	포르투갈 리스본
655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가자(1, 2)	스웨덴 스톡홀름
656	영성은 역경 속에서 빛난다	아일랜드 더블린
658/709	음악으로 하나 된 평화의 세상	미국 로스앤젤레스
662	용기 있게 삶에 맞서라	영국 런던
665	칭하이 무상사와 함께한 활로원 주말(1, 2)	미국 로스앤젤레스
665A	마음의 평정	터키 이스탄불
667	신의 헛되이 되라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668	보이지 않는 길	남아프리카 더반
670	우리의 완전한 본성	미국 플로리다
671	깨닫는다는 것	이스라엘 텔아비브
673	감정을 초월하라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674	사랑과 웃음 속을 거닐자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675	모닥불 앞에서 함께 부르는 노래	한국 영동
676	세계 종교회의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677	천사의 미소	태국 방콕
680	공의 차원을 넘어서	태국 방콕
681	어린이의 마음	태국 방콕
688	사랑은 삶의 진정한 본질이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689	깨달음과 무지	네덜란드 카트만두
690	진정한 행복은 본성을 인식하는 것	홍콩
691	현상은 실재의 반영이다	필리핀 마닐라
692	내면의 자성에 귀 기울이기	포모사 타오위안
693	지혜와 집중	일본 도쿄
694	삶은 영원히 지속된다	한국 서울
695	영성과 지성의 교류(1, 2)	포모사 중앙 학술 연구원

696	돌과 마음을 벗어난 자유	한국 영동
697	생선 떡기	한국 영동
698	진행하는 스승	한국 영동
700	살아 있는 성인	한국 영동
701	위대한 가르침을 전수하기 위하여	한국 영동
702	진정한 진보는 세계 평화	한국 영동
703	깨달은 스승과의 내적 텔레파시	한국 영동
705	꿈에서 깨어나라	한국 서울
708	사랑에 관한 이야기(1, 2)	일본
710	스승님 생신 축하 공연(1, 2)	한국 영동
711	인생이라는 훌륭	미국 프레즈노
712	동물들의 신성한 지성	미국 플로리다
713	사랑이 스승이다	미국 플로리다
714	개는 경이로운 존재이다	미국 플로리다
715	목록하고 결손하게 수행하라	한국 영동
716	자연스럽게 삶을 사랑하는 법	미국 플로리다
717	좋은 이웃의 미덕	미국 플로리다
718	사랑은 항상 좋다	미국 플로리다
719	나쁜 습관 극복하기	미국 플로리다
720	출가생활은 금욕주의에서 시작된다	미국 플로리다
721	지혜안	미국 플로리다
724	신실하고 순수한 마음	미국 플로리다
725	결손한 생활 방식	미국 플로리다
726	무아의 동기	미국 플로리다
728	선한 생각의 가피력	미국 플로리다
729	위대함은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는 것	미국 플로리다
730	사랑으로 소통하라	미국 플로리다
731	한마음의 힘	미국 플로리다
732	긍정적인 생각은 큰 힘을 가져온다	미국 플로리다
733	고귀한 이상을 가지고 살자	미국 플로리다
734	깨달은 스승의 사랑스런 감촉	미국 플로리다
735	변화의 용기	미국 플로리다
736	인생이라는 환상의 게임	미국 플로리다
738	단순한 생활	미국 플로리다
740	조화롭게 생활하는 법을 배우자	미국 플로리다
741	밀레니엄 공연	태국 방콕
743	부처의 술품(MTV)	
744	당신을 사랑한 이후로(MTV)	
745	이 세상에 공헌하자	미국 로스앤젤레스
746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아끼는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	캐나다 토론토
747	신선과 용의 후예	미국 플로리다
748	결손학의 시작	한국 서울, 미국 샌프란시스코, 호주 시드니 어울락
752	사랑의 만남	미국 인디애나, 오스트리아 빈
753	만들에 대한 사랑	

754	영적 깨달음의 단계	미국 플로리다
755	웃는 성인들	미국 플로리다
756	정직의 가치	미국 플로리다
757	스승들의 차원에 대한 진리	미국 플로리다
758	깨달음을 전수하는 힘	미국 플로리다
759	고대의 어울락	미국 텍사스
760	진정한 영웅	미국 로스앤젤레스
761	사랑의 노래	헝가리
762	엄장을 다루는 법	멕시코 멕시코시티, 코스타리카 산호세
763	영적 수행에서의 자기 단련	미국 보스턴
764	한방의 꿈(MTV)	
765	시공을 초월하여(MTV)	
766	순수한 동기로 선형사에 참가하라	미국 플로리다
767	깨달은 스승의 역할	미국 플로리다
768	신의 말에 귀 기울이면 생활이 더 단순해진다(1, 2)	미국 플로리다
769	보석 시집(1, 2)	
770	황금 연꽃(1, 2)	
771	젊은이의 열정	
772	웃으며 바라보는 인생	
773	무조건적인 혼신	
774	긍정적인 사고로 세계 평화를 이끌자	태국 파타야
775	한 사람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태국 파타야
776	사랑과 축복은 산을 옮기고 바다를 메울 수 있다	태국 파타야
777	감사함은 세상에 영광을 가져온다	태국 파타야
778	수행 진보는 일상생활에 반영된다	태국 파타야
779	불 노래 모음집	포모사 시후
780	내 인생의 개들과 새들	
781	단순하고 요구 없는 마음을 유지하자	포모사 시후
782	개과천선의 공덕	포모사 시후
783	신은 밤새도록 우리를 부른다	포모사 시후
784	동물들과 평화롭게 공존하자	포모사 시후
785	마음으로 신을 기억하면 운명이 돌아진다	포모사 시후
787	깨달은 정부가 밝은 미래를 창조한다(1, 2)	포모사 시후
788	평화롭게 천국으로 돌아가자	포모사 시후
792	환경에 관한 칭하이 무상사의 말씀: 긍정적인 전망과 태도를 가져라	미국 캘리포니아
793	단순하고 고귀한 삶	프랑스 파리
794	숭고한 품성이 높은 나라	프랑스 파리
795	웃음은 유익한 것	프랑스 파리
796	신이 인류에게 보내 준 수호천사	프랑스 파리
797	신의 웃은 깨달은 스승을 통해 이루어진다	프랑스 파리
798	동물들과 의사소통하는 최적의 방법	포모사 타이베이
799	환경에 관한 칭하이 무상사의 말씀: 우리 행성에 더 큰 편안함과 지속 가능성을 가져오자	독일 함부르크

800	고귀한 아생	
801	고대의 사랑	
802	조국 사랑	
804	명상의 무한한 가파력	프랑스 파리
805	신은 인간을 듣고자 등을을 칭조하셨다(1, 2)	포모사 타이베이
806	진리를 찾아서	프랑스 파리
807	어려운 시기에 신심을 지켜라(1, 2)	프랑스 파리
808	영혼을 위한 음식	프랑스 파리
809	출기자의 마음	프랑스 파리
810	천국의 사랑스러운 지원	프랑스 파리
811	영성이 고양되는 세계	프랑스 파리
812	깨달은 스승의 폭넓은 현신	프랑스 파리
813	건설적인 일을 통해 지구를 재건하자(1, 2)	프랑스 파리
814	모든 평화의 종교는 화합의 생활 방식으로 인도한다	프랑스 파리
816	영적 수행자의 진정한 재산(1, 2)	프랑스 파리
817	다 함께 아름답고 고결한 세계를 만들자	프랑스 파리
819	깨달음과 함께하는 웃음	프랑스 파리
820	깨비르와 진정한 성인의 정신	프랑스 파리
821	죽음을 초월하자	프랑스 파리
822	웃으며 천국으로 걸어가자	프랑스 파리
823	모든 성인을 친양하는 축제일	프랑스 파리
824	즐겁게 살자	프랑스 파리
825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 칭하이 무상사의 '고귀한 아생' 신간 발표회	포모사 타이베이
826	SOS! 지구 온난화 국제 세미나: 생명을 보호하고 지구를 살리자(1, 2)	한국 서울
827	전력을 다해 환경 위기를 해결하자	오스트리아 클라겐푸르트
828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스트리아 클라겐푸르트
833	천상의 예술(1)-시후 센터	
834	천상의 예술(2)-천국의 아름다움	
835	환경에 관한 칭하이 무상사의 말씀: 1부-비건 채식으로 지상 애덴을 만들자/ 2부-비건 채식이 해결책임을 전하라	영국 서리, 미국 시애틀
836	환경에 관한 칭하이 무상사의 말씀: 비건 채식은 세계를 구할 해결책이다	영국 런던
837	2008 지구를 구하는 중요한 순간: 난 무엇을 할 수 있나?(1, 2)	포모사 타이베이
838	칭하이 무상사의 감동 여행: '지상의 애덴' 예술 영상전(1, 2)	포모사 타이베이
839	환경에 관한 칭하이 무상사의 말씀: 고귀한 목적과 마음의 변화가 지구를 구할 수 있다	어울락
840	환경에 관한 칭하이 무상사의 말씀:	태국
	인간의 천성은 자비롭고 사랑이 가득하다	
841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회의:	미국 웨스트헐리우드
	칭하이 무상사와 헐리우드의 유명 인사를(1, 2, 3)	
843	SOS 지구 온난화 종지 세미나	일본 도쿄

844	칭하이 무상시와의 회상회의: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신간 발표회(1, 2) (1부-어울락어판/ 2부-독일어판)	태국 파툼파니, 독일 프랑크푸르트
845	수프림 마스터 TV 개국 2주년: 모든 생명에 경의를 표하는 문화 황연(1, 2, 3)	미국 로스앤젤레스
846	‘지구 온난화를 막자-지금 행동하자’ 회의	태국 방콕
847	환경에 관한 칭하이 무상시의 말씀: 채식으로 우리 운명을 바꾸고 지구를 구하자	한국 서울
848	환경에 관한 칭하이 무상시의 말씀: 사랑과 의식 있는 삶을 살자	포모사 평후
849	환경에 관한 칭하이 무상시의 말씀: 자비가 자비를 낳는다	호주 시드니
850	순수한 마음이 많은 기적을 만든다	프랑스
852	칭하이 무상시와의 회상회의: ‘천상의 예술’, 영문판 신간 발표회(1, 2)	미국 캘리포니아
853	아이스트코스트 FM 라디오와 칭하이 무상시의 인터뷰	아일랜드
854	칭하이 무상시의 매체 인터뷰(1, 2)	미국 뉴욕 / 아일랜드
855	환경에 관한 칭하이 무상시의 말씀: 고귀한 방향으로 나아가자	뉴질랜드 오클랜드
856	환경에 관한 칭하이 무상시의 말씀: 화성으로부터의 자비로운 메시지 -덕 있는 삶을 살고 지구를 구하라	미국 로스앤젤레스
858	평화로운 행성으로 깨어나기: 지상 천국을 활하여(1, 2)	프랑스
859	도교의 장생법에 관한 고사	몽골 울란바토르
860	칭하이 무상시와의 회상회의: 지구 온난화-SOS 시급한 기후변화 문제 국제회의(1, 2, 3)	미국 캘리포니아
861	‘지구를 구하자’ 몽골 콘서트(1, 2)	몽골 울란바토르
862	칭하이 무상시와 피델 라모스 필리핀 전 대통령의 회상회의: ‘지금 행동하자!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	포모사 타이베이
863	칭하이 무상시와의 회상회의: SOS-지구를 구하자(1, 2)	멕시코 베라크루스
864	신을 믿으라	프랑스
865	평화를 위한 주스 단식	미국 캘리포니아
866	에고는 가장 큰 적이다	프랑스
867	‘2009 지구를 구하자’ 회의	한국 서울
868	지혜로운 성자들: 나스루딘 이야기와 루미의 시	프랑스
870	높은 세계의 축복의 힘	프랑스
871	무아의 실천: 보시와 선정 바라밀	프랑스
872	변화를 가져오자-환경을 보호하자	멕시코 베라크루스
873	비건 세상을 위한 비건 지구의 날	미국 캘리포니아
874	환경에 관한 칭하이 무상시의 말씀: 살생은 절대 용지 않다	프랑스
875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구를 구해야 한다	프랑스
878	환경에 관한 칭하이 무상시의 말씀: 긍정의 비밀(1, 2)	미국 캘리포니아
879	여우의 보은	프랑스
880	신의 안전한 품에 잡기라	프랑스
886	홀로 기도할 때	프랑스
894	수프림 마스터 렐레이전 개국 3주년 음악회: 푸른 지구와 평화로운 삶에 기pile하기	미국 로스앤젤레스

TV-1 살아 있는 성인의 길을 걷다
 TV-4 국경을 초월한 사랑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음악·콘서트가 담긴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 MP3, CD, DVD는 다음 언어로 출판되어 있습니다. 광동어,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러시아어, 말레이어, 몽골어, 불가리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리즈어, 아랍어, 아르메니아어, 어울락어, 영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줄루어, 중국어 간체·번체, 제코어, 김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태국어, 터키어, 폐르시아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펠란드어, 한국어, 형가리어, 히브리어 등. 카탈로그를 요청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언제든 바로 문의해 주세요.

출판물을 구하려면

모든 출판물은 원가에 가까운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출판물을 구입, 또는 주문하고자 하는 분은 각 지역 센터나 연락인에게 먼저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구매 가능한 출판물 목록을 얻고자 하는 분은 지역 센터나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multilang/>
<http://smchbooks.com/new-c/cover/cover.htm>
<http://magazine.godsdirectcontact.net/>

이 외 온라인상의 뉴스잡지를 통해 최신 출판된 경서나 테이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 행사의 전시장도 스승님의 경서·테이프·사진·그림·보석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홀륭한 공간입니다.

필요하다면 포모사 본부(P.O.Box 9, Hsihu, Miaoli, Formosa, ROC)에 직접 주문을 해도 됩니다. 자세한 목록 또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음 웹사이트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전세계 인터넷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이 포털 사이트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관음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하며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24시간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나라별 언어로 된 「즉각 깨닫는 열쇠」 전본책자를 다운로드하거나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를 전자책(eBook), 인쇄용 포맷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구독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사이트의 온라인 컨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속적인 보물을 발견하면 다함이 없는 보고寶庫에서 끌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한한 축복입니다! 나는 그 어떤 말로도 이를 광고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찬탄할 뿐이며 여러분이 나의 찬탄을 믿기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나의 에너지가 어떻게든 여러분 가슴에 닿아 여러분을 그 환희에 넘치는 느낌으로 고양시키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믿을 것입니다. 입문 후 여러분은 진정으로 내 말뜻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 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위대한 축복을 전할 길이 없습니다. 신은 내게 이 축복을 주시면서 아무 조건이나 대가 없이 사람들에게 나눠 줄 권리를 주셨습니다.”

~칭하이 무상사~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보고 생각하고 함께 책을 읽거나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업을 조금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업을 줄여 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 때문에 우리가 수행하고 빛을 전하고 어둠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들의 업을 주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칭하이 무상사~

“인간의 언어로 우리는 늘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다. 언제나 온갖 얘기를 떠들어대고 모든 것을 비교하고 가치를 따지고 증명하고 무엇에든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절대적 존재’, 진짜 ‘절대적 존재’라면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해 얘기를 하거나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알겠습니까?”

~칭하이 무상사~

전세계 연락처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O.Box 9, Hsihu, Miaoli 36899, Formosa, R.O.C.
 P.O.Box 730247, San Jose, CA 95173-0247, U.S.A.

* 다음 명단은 신앙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또는 폭넓게 존중하는 훌륭한 나라에 있는 연락인과 연락처입니다. 여러분의 지역에 연락인이 없다면 우리 본부나 가장 가까운 센터로 연락해 주세요.

전세계 연락처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연락처를 확인하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cp/index.htm> (영어)

◆ 아프리카

* 베냉

- 코토노우/ Mr. Yedjenou Georges/ 229-93076861/ smchwisdom@gmail.com
- 코토노우/ Mr. Yedjenou Sylvestre/ 229-21380404/ yedsylves@gmail.com
- 코토노우/ Mrs. Hourwanou Sessito Lucie/ 229-93427641, 229-95910948/ smchlove@gmail.com
- 포르토노보/ Mr. Hounhoui Mahougbé Didier/ 229-90 93 29 99/ smportonovo@yahoo.fr

* 부르키나파소

- 와기두구/ Mr. YAMEOGO Honore/ 226-76 62 34 58/ honoreyam@yahoo.fr

* 카메룬

- 두알라/ Mr. Daniel Xie/ 237-3-3437232/ smcameroon@gmail.com
- 두알라/ Mr. Thomas KWABILA/ 237-99-15-05-73/ thomaskwa@yahoo.fr

* 콩고민주공화국

- 킨사사/ 센터/ 243-810583010/ blessedcongo@yahoo.fr
- 킨사사/ Mr. Mbau Ndombe Abraham/ 243-811433473

* 가봉

- 리브레빌/ Mr. Mouity Ludovic Bernardin/ 241-07162358/ ludovicmouity@yahoo.fr

* 가나

- 야크라/ Mr. Amuzu Kwei Samuel/ 233-277607-528/ smghanac@yahoo.com
- 야크라/ Mr. Emmanuel Koomson/ 233-244170-230

* 아이보리코스트

- 아비잔/ Mr. Yao Koua Kou/ 255-01246302/ etienneyao82@yahoo.fr

* 케냐

- 나이로비/ 센터/ 254-020-8010897/
- 나이로비/ Mr. Harold Dudi/ 254-202081068/ Almoske@yahoo.com

* 모리셔스

- 포트루이스/ Mr. Janesh KISTOO/ 230-2577520/ janesh7@orange.mu

* 나이지리아

- 예나고아/ Ms. Harry Juliana/ 234-813 488 0142/ brayila@yahoo.com

* 콩고공화국

- 브라자빌/ 센터/ 242-5694029, 242-5791640/ goldenagecongo@yahoo.fr

* 남아프리카공화국

- 케이프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 요하네스버그/ Mr. Tyrone Incendiario/ 27-83-468-7001/ tyronein@hb.stormnet.co.za

* 탄자니아: 센터/ 255-7773-54776/ vegantogther@gmail.com

* 토고

• 팔리메/ Mr. Dossouvi Koffi/ 228-905 42 76, 228-955 31 24/ jdossouvilr@yahoo.fr

• 로메/ Mr. Gbenyon Kuakuvi Kouakou/ 228-902 72 07/ kgbenyon@yahoo.fr

• 로메/ Mr. GERALDO Misbau/ 228-022 78 44/ mmmylg@yahoo.fr

* 우간다

• 캄팔라/ Ms. Kigoonya Rosalyn/ 256-772-675436/ kigoonyarosalyn@yahoo.com

◆ 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 Mr. Pablo Baez/ 54-11-4381-9666/ hallovemaster@hotmail.com

* 브라질

• 벨름/ Ms. Cleci de Brito Neves/ 55-9188019288/ contato.belem@yahoo.com.br

• 고이아니아/ Mr. Eusmar Rodrigues Martins/ 55-62-96016636/ goianiacenter@gmail.com

• 레시페/ 센터/ recifecenter@gmail.com

• 레시페/ Ms. Maria Vasconcelos de Oliveira/ 55-81-3326-9048/ vasconcelosdeoliveira.maria@gmail.com

• 상파울루/ 센터/ 55-11-5904-3083, 55-11-5579-1180

• 상파울루/ 연락인 사무실/ 55-11-5083-7227/ sp@contatodiretocomdeus.org

• 상파울루/ Mrs. Marcia Mantovaninni/ 55-11-3083-5459

* 캐나다

• 에드먼턴/ Mr. Tuan Anh Phan/ 1-780-235-7578/ minokimba999@yahoo.ca

• 런던/ 센터/ Mr. Bill Barton/ 1-519-4952215/ bbarto2162@rogers.com

• 몬트리올/ 센터/ 1-514-764-4317

• 몬트리올/ Mr. Terry Terrian/ 1-514-764-3534/ tterrian@yahoo.com

• 오타와/ 센터/ ottawacentre@gmail.com

• 오타와/ Ms. Sonal Pathak/ 1-819-770-5516/ sjpathak36@hotmail.com

•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 토론토/ Mr. Calvin Nhat Nguyen/ 1-647-802-3459/ atpeace.nhat@gmail.com

• 밴쿠버/ 센터/ Vancouver.Center@gmail.com

• 밴쿠버/ Mr. Gary Chen/ 1-604-710-7896/ gcheaven@gmail.com

• 밴쿠버/ Mrs. Lisa Hollingberry/ 1-604-725-8687/ noblelife@ymail.com

* 칠레

• 라세레나/ Mr. Ruben Augusto Bonilla Araus/ 56-92967880/ rubaro@hotmail.com

•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1@yahoo.com

• 산티아고/ Mrs. Jacqueline Barrientos/ 56-2-3147786/ jackybarrientos@gmail.com

* 콜롬비아

• 보고타/ 센터/ Ms. Yudy Liceth Guzman perdomo/ 57-3003932587, 57-1-2030051/ lucykuanyin@gmail.com

* 코스타리카

• 산호세/ 센터/ 506-2268-1045

• 산호세/ Ms. Silvina Angela Lopes Rossi/ 506-8836-2848/ centro.med.costarica@gmail.com

* 에콰도르

• 로하/ Mr. Alan LEE/ 653-9722 0387/ alantblee@gmail.com

• 로하/ Mrs. Merrilyn LEE/ 653-9722 0387/ merrilyntylee@gmail.com

* 엘살바도르

• 산살바도르/ Ms. Carolina del Carmen Rivera/ 503-7790-6258/ fenixcarolina@yahoo.com

* 온두라스

• 테구시갈파/ Mrs. Ondina Corrales Flores/ 504-222-7733/ ondicotgu@yahoo.com

* 멕시코

• 멕시칼리/ Ms. Sonia Valenzuela/ 1-928-317-8535/ mexicali_center@hotmail.com

• 멕시코 주/ Ms. Laura Lopez Aviles/ 52-55-58521256, 52-55-13974330/ texcenter@gmail.com

• 몬테레이/ Mr. Humberto Martinez/ 52-81-811-1691541/ martinezrdzh@gmail.com

* 니카라과

- 마나과/ 센터/ 505-248-3651/ pastora7iglesia@yahoo.com

* 파나마

- 파나마/ 센터/ 507-236-7495
- 파나마/ Mr. Cesar Ravel Sanjur Barrera/ 507-6747-7122/ ravelasanjur@gmail.com

* 파라과이

- 시우다드델에스테/ Mr. & Mrs. Italo Acosta/ 595-61-578571, 595-983614592/ Italocostaa@hotmail.com

* 베루

- 쿠스코/ Ms. Angelica Garcia Yanez/ 51-19-96138612/ agyrom@hotmail.com
- 리마/ Ms. Maria Isabel, Tuesta Angulo/ 51-1-995264571/ marlite_pe@yahoo.com
- 트루히요/ Ms. Maria Andrea Paredes Lopez/ 51-44224908/ paloma_qyin@yahoo.com

* 수리남: Mrs. Nian Li, Chen/ 597-8664577/ nianli_2006@yahoo.com.cn

* 우루과이

- 몬테비데오/ Mr. Esteban Ceron/ 598-2-305 9288/ estceron@yahoo.com

* 베네수엘라

- 마라카이보/ Ms. Dianela Carola Diaz Fereira/ 58-4168605497/ dianela33@yahoo.es

* 미국

§ 애리조나: 센터/ 1-602-264-3480

§ 애리조나: Mr. Elie Firzli/ 1-602 692 5035/ pelikan@cox.net

§ 아칸사스: Ms. Cynthia Hudson/ 1-479-981-1858/ arkansascenter1es@cox.net

§ 캘리포니아

- 프레즈노/ Ms. Frances Lozano/ 1-559-765-7140/ estudios62301@yahoo.com
- 로스앤젤레스/ 센터/ 1-714-924-5327/ smch.lacusa93@yahoo.com
- 로스앤젤레스/ Ms. Chiem, Mai Le/ 1-714-924-5327/ maithkiem@gmail.com
- 샌크라멘토/ Mr. Thi Thai Le/ 1-916-799-7768/ thaivegi@yahoo.com
- 샌크라멘토/ Mr. Tuan Minh Le/ 1-916-226-9197/ tuanins@yahoo.com
- 샌디에이고/ Mr. Dau Van Ngo/ 1-858-573-2345/ daungo@yahoo.com
- 샌프란시스코/ Mr. Blaise Scavullo/ 1-510-965-3647/ blaise.scavullo@gmail.com
- 새너제이/ Ms. Crystal Silmi/ 1-510-421-2095/ crystalsilmi@gmail.com
- 새너제이/ Mr. Jingwu Zhang/ 1-408-505-5824/ jingwuzhang@hotmail.com
- 새너제이/ Ms. Mai Thanh Phan/ 1-408-603-5037/ smthanhmai@gmail.com

§ 클로라도: Mrs. Rachel Marzano/ 1-720-229-0446/ coloradocenterusa@gmail.com

§ 플로리다

- 잭슨빌/ Mr. David Tran/ 1-904-285-0265/ jaxcenter@gmail.com
- 케이프코럴/ Mr. Long Huynh/ 1-239-593-1541/ cccflsaints@gmail.com
- 포트로더데일/ Mr. Henry Lu/ 1-772-318-9100/ yihyoohlu@gmail.com
- 올랜도/ Mr. Johnny Scott-Meza/ 1-407-529-7829/ scottmezajohnny@yahoo.com

§ 조지아: Mrs. Mireille Whitenour/ 1-770-856-5421/ georgiacenter@hotmail.com

§ 하와이: Mr. Neil Trong Phan/ 1-808-398-4693/ neilphan@gmail.com

§ 일리노이: Ms. HaRim Lee/ 1-773-351-5957/ sm.illinois@gmail.com

§ 인디애나: Ms. Josephine Poelintz/ 1-317-842-8119/ josiepoe@sbcglobal.net

§ 켄터키

- 프랭크퍼트/ 센터/ kycenter2000@yahoo.com
- 루이스빌/ Mr. Lei Wang/ 1-502-644-2804/ wanglei300@gmail.com
- § 메릴랜드: Ms. Joy Su/ 1-443-812-2681/ joyxiaominzu@gmail.com
- § 메릴랜드: Mr. Pete Theodoropoulos/ 1-410-667-4428/ petetheo111@hotmail.com
- § 메사추세츠
- 보스턴/ 센터/ 1-978-528-6113/ bostoncenter2008@yahoo.com
- 보스턴/ Ms. Allison C. Joyal/ 1-401-769-5948/ joyallison@yahoo.com
- 보스턴/ Mrs. MyDung Truong/ 1-617-480-2450/ mdtruong51@yahoo.com
- 보스턴/ Ms. Li-Yu Chen/ 1-781-228-1941/ Lywlotus@yahoo.com.tw

§ 미시간: Ms. Jeanne Minier/ 1-517-543-2341/ michigancenterusa@gmail.com

§ 미네소타: Mr. & Mrs. Hoang Ta/ 1-952-226-4203 8/ yolanta66@yahoo.com

§ 미주리: Ms. Mary Ella Steck/ 1-573-230-3843/ maryellasmtv@gmail.com

§ 뉴멕시코: Mrs. Nga Truong/ 1-505-256-3104/ ntruongnm@yahoo.com

§ 뉴저지: 센터/ 1-973-209-1651/ NJCenter@gmail.com

§ 뉴저지: Mr. Hero Zhou/ 1-973-960 6248/ yb_zhou@hotmail.com

§ 뉴저지: Ms. Lynn McGee/ 1-973-864-7633/ lynn.mcgee@yahoo.com

§ 뉴저지: Ms. Yu Linda Zhang/ 1-732-752-6829/ Linda2010@gmail.com

§ 뉴욕

- 뉴욕/ Ms. Heidi Murdock/ 1-631-905-6783/ heidimurdock@yahoo.com

- 뉴욕/ Ms. Woan-Hwa Renee Syltwu/ 1-973-462-8867/ rsytwu.nycenter@gmail.com

§ 노스캐롤라이나: Mr. Fred Lawing/ 1-704-614-4397/ northcarolinacenter@hotmail.com

§ 오하이오: 센터/ centerohio@gmail.com

§ 오하이오: Mr. Aaron Suttschenko/ 1-513-470-1787/ aaron@loveforce.net

§ 오클라호마: Mrs. Tran, Thao/ 1-918-292-8884/ smtu2007@cox.net

§ 오리건: Mrs. Xuan Cheng/ 1-541-9054073/ xuan.cheng2008@gmail.com

§ 펜실베이니아

- 필라델피아/ Mrs. Thao Le/ 1-717 432 0720/ thaocppa@yahoo.com

- 피츠버그/ Mr. Trung Kieu/ 1-408 786 4856/ pittsburghcp@gmail.com

§ 사우스캐롤라이나: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474-3492/ smch_southcarolina@yahoo.com

§ 텍사스

-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jjdawu@yahoo.com

- 오스틴/ Mr. Hien Nguyen/ 1-512-249-9313/ hienng@yahoo.com

- 댈러스/ 센터/ 1-214-339-9004/ DallasCenter@yahoo.com

- 댈러스/ Mr. Tom Vennum/ 1-360-223-0855/ tom_vennum@yahoo.com

- 댈러스/ Mr. Quang Nhat Vuong/ 1-469-363-0896/ imquangvuong@yahoo.com

- 댈러스/ Ms. Xiaoyun Liao/ 1-214-280-0621/ Sharon_xyiao@yahoo.com

- 휴스턴/ 센터/ 1-281-955-5782

- 휴스턴/ Mrs. Ariane Liao/ 1-713-774-5234/ aikipiano@yahoo.com

- 휴스턴/ Ms. Judy Peng/ 1-281-7944464/ fengjiaulin@gmail.com

- 휴스턴/ Mrs. Van Le Ngoc/ 1-832-964-4980/ phivanlove@yahoo.com

- 샌안토니오 / Mr. Adam Gomez/ 1-210-313-5023/ adamdgomez@hotmail.com

§ 버지니아

- 워싱턴 DC/ 센터/ VaCenterUSA@gmail.com

- 버지니아/ Mrs. Elaine Yu/ 1-703 533 1787, 1-571-2787457/ eyu1217@gmail.com

§ 워싱턴

- 시애틀/ Mr. Hoang Nguyen/ 1-206-393-2852/ smch.seattle@gmail.com

§ 위스콘신

- 메디슨/ Ms. Thu Lieu Thi Dang/ 1-608-844-4480/ wi.bevegan@yahoo.com

§ 푸에르토리코: Mr. Michael E. Jeffers/ 1-787-231-0878/ prcenter@live.com

§ 푸에르토리코: Mrs. Sonia Alfaro Jaco/ 1-787-512-0286/ prcenter@live.com

◆ 아시아

* 아제르바이잔

- 바쿠/ Mr. Ahmad Shahidov/ 994-55 205 65 65/ ahmad_shahidov@hotmail.com

* 캄보디아: 센터/ 855-16829811/ starsoeng@yahoo.com

* 포모사

- 타이베이/ 센터/ 886-2-2706-6168/ tpe.light@gmail.com

- 타이베이/ Mr. Lee, Ming-Chien/ 886-988134955/ newhalo@gmail.com

- 미야오리/ Mr. Chang, Jung Yao/ 886-918917032/ smyaoyu@gmail.com

- 가오슝/ Mrs. Su Hsueh, Fang-Hsiu/ 886-911-765211/ show0911765@yahoo.com.tw

* 홍콩

- 홍콩/ 센터/ 852-27495534
- 홍콩/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sm_hongkong@yahoo.com

* 인도네시아

- 발리/ 센터/ 62-361-231-040/ smch_bali@yahoo.com
- 발리/ Mr. I Nyoman Widjaya/ 62-81558068909/ qomink2006@yahoo.com
- 자카르타/ 센터/ 62-21-6319066/ smch_jkt@gmail.com
- 자카르타/ Ms. Faye Yowargana/ 62-815-9982537/ fayebright@gmail.com
- 말랑/ Mr. Rudy Seliawan/ 62-81-8330375/ rudy_zhang@yahoo.com
- 메단/ 센터/ 62-61-4514656/ smch_medan@hotmail.com
- 메단/ Ms. Erika Wijaya Ng/ 62-85664065425/ universallove333@gmail.com
- 수라바야/ 센터/ 62-31-3810166
- 수라바야/ Ms. Sri Riki Rejeki/ 62-818316181/ tabitha.hanna@gmail.com
- 유타카르타/ Mr. Udjung Harjanto/ 62-274-897161/ udjung.harjanto@yahoo.com

* 이스라엘

- 텔아비브/ Mrs. Talya Tal/ 972-50-8511720/ tal.talya@gmail.com

* 일본

- 군마/ Ms. Ritsuko Takahashi/ 81-90-1605-6863/ rita@rainbow.plala.or.jp
 - 도쿄/ Mrs. Hyakutake Toshiko/ 81-90-4923-1199/ binta100@gmail.com
 - 도쿄/ Mrs. Yoshii Masaе/ 81-90-6542-6922/ smchflute@gmail.com
 - 도쿄/ Mrs. Sato Rie/ 81-80-5654-1688/ riesato302@yahoo.co.jp
 - 오사카/ 센터/ smchtoosaka@gmail.com
 - 오사카/ Mr. Le Khac Duong/ 81-90-6064-7469/ leduongjp@yahoo.com
- * 오르단: Mr. Jafar Marwan Irshaidat/ 962 7 95119993/ estaphuam@hotmail.com

* 인도

- 뭄바이/ Bipin Thosani/ 91-9833086680/ bipinthsosani@gmail.com

* 대한민국

- 출판사/ 042-543-9250/ chinghaikpl@yahoo.co.kr
- 영동/ 센터/ 054-532-5821/ houmri21@yahoo.co.kr
- 서울/ 센터/ 02-577-2158/ goldenseoul@yahoo.co.kr
- 서울/ 강진태/ 011-263-3563/ samwoncokr@hanmail.net
- 서울/ 조순복/ 010-2494-3455/ a811439@hanmail.net
- 서울/ 유하영/ 010-7744-0421/ Discipleofsm@naver.com
- 부산/ 센터/ 051-334-9204/ chinghaibusan@gmail.com
- 부산/ 변현웅/ 010-6657-9736/ byunwhar@gmail.com
- 부산/ 김홍련/ 016-571-5433/ rainhong1@hanmail.net
- 대구/ 센터/ 053-743-4450/ chinghaidaegu@hanmail.net
- 대구/ 흥성태/ 011-530-5254/ hongst33@naver.com
- 대구/ 김정순/ 010-7130-4302/ yubabba@hanmail.net
- 대전/ 센터/ 042-625-4801/ smdaejeon@yahoo.co.kr
- 대전/ 김선재/ 010-6425-2390/ ksj571222@naver.com
- 전주/ 센터/ 063-274-7553/ shc5824@hanmail.net
- 전주/ 최병선/ 011-9715-9394/ buda1996@hanmail.net
- 광주/ 센터/ 062-525-7607/ smgwangju@naver.com
- 광주/ 이민규/ 011-609-2243/ mglee2243@naver.com
- 광주/ 흥순/ 010-6662-8212/ hs5779@paran.com
- 인천/ 센터/ 032-867-5351/ lightundinchoon@yahoo.co.kr
- 인천/ 공미희/ 010-4804-5303/ kmeehee2000@yahoo.co.kr
- 안동/ 센터/ 054-821-3043/ smandong@hanmail.net
- 안동/ 조영래/ 054-673-6320/ andoekd@hanmail.net
- 안동/ 김진희/ 010-4855-6855/ kjh5606kr@yahoo.co.kr

- 울산/ 센터/ 052-224-4111

- 울산/ 이말순/ 010-5142-4766/ soon605@hotmail.com

- 원주/ 센터/ 033-763-9358

- 원주/ 정광훈/ 019-369-2509/ chongkhun@naver.com

- 원주/ 김진숙/ 010-4715-2509/ chinskim@hanmail.net

- 상주/ 김정기/ 010-4782-7040/ jksir@hammail.net

- 청옥/ 센터/ 054-673-1399

*** 라오스**

- 비엔티안/ Mr. Thongphet Silhammavong/ 85620-5700785/ tpsithammavong@hotmail.com

*** 마카오**

- 마카오/ 센터/ 853-28532231/ mcdivlove@yahoo.com.hk

- 마카오/ 연락인 사무실/ 853-28532995

*** 말레이시아**

- 알로르세타르/ Ms. Chin Chai Yean/ 60-19-4118298/ jellyyean@yahoo.com

- 조호르바루/ Mr. Wang Ah Sang/ 60-16-7220779/ wangahsang@yahoo.com

- 쿠알라룸푸르/ 센터/ 60-3-2145 3904

- 쿠알라룸푸르/ Ms. Too Choon Lian/ 60-17-342 2238/ dottoo22@gmail.com

- 쿠알라룸푸르/ Ms. Chung Lee Woon/ 60-12-275 0196/ lwoon.chung@yahoo.com

- 페낭/ 센터/ 60-4-2285853/ pgsmch@gmail.com

- 페낭/ Ms. Yeap Boey Khim/ 60-16-4563129/ oceanlove08@gmail.com

- 페리크/ Ms. Chong Sin Foong/ 6012-5173312, 605-288-2342/ sinvege85@yahoo.com

*** 몽골**

- 울란바토르/ Mr. Bayarbat Rentsendorj/ 976-99774277/ quanyin_mongolia@yahoo.com

- 코톨/ Mr. Chinsukh Uuter/ 976-99110446/ khotolcenter@yahoo.com

- 코톨/ Ms. Tsendorj Tserendorj/ 976-99370917/ tsendee_hutul@yahoo.com

*** 미얀마:** Ms. Thin Thin Lwin/ 95-42-24373, 95-9-8550401/ thinthinlwin28@gmail.com

*** 네팔**

- 카트만두/ Mr. Amit Karki/ 977-9841023500/ amitmanav@yahoo.com

*** 필리핀**

- 마닐라/ 센터/ 63-2-391-2378/ phi.loveocean.mnl@gmail.com

- 마닐라/ Ms. Rosean Villones/ 63-9266403063/ rosean_204@yahoo.com

*** 싱가포르**

- 싱가포르/ 센터/ 65-6741-7001/ chinghai@singnet.com.sg

- 싱가포르/ Mr. Foo Tack Ming/ 65-9137 1800/ ftmnwl64@singnet.com.sg

*** 스리랑카**

- 콜롬보/ Mr. Sampath Ananda Senadeera/ 94-33-2227671

- 콜롬보/ 센터/ 94-11-2412115, 94-772-984912/ smchnirvana@gmail.com

*** 시리야:** Mr. Hisham Abou Ayash/ 963-11 6114435/ drhishamo@gmail.com

*** 태국**

- 방콕/ 센터/ 66-2-674-2690/ bkkc66@gmail.com

- 방콕/ Mrs. Wanpen Kanchanaprin/ 66-81-641-0312/ wanpensm@gmail.com

- 방콕/ Mr. Chusak Osonprasop/ 66-081-48165001/ mummykat@hotmail.com

- 방콕/ Mrs. Ratchanan Jintana/ 66-081-7515227/ bkkccr@gmail.com

- 치앙마이/ Mr. Li Yaolong/ 66-84616 2846/ yaolongli@gmail.com

*** 터키**

- 앙카라/ Mrs. sule Nesrin Alper/ 90-5325180146/ snalp@hotmail.com

*** 아랍에미리트**

- 아부다비/ Mr. Dhiraj D. Radadiya/ 971-50-3118499/ dradadiya@yahoo.com

◆ 유럽

*** 오스트리아**

- 빈/ 센터/ 43-699 1000 5738/ wiencenter@gmail.com

- 빈/ 연락인 사무실/ 43-650-8420794/ ngocdany@yahoo.com
- * 벨기에
 - 브뤼셀/ Mrs. LUU, Kim Yen/ 32-2-479-1546/ kimyen.luu@mail.be
- * 불가리아
 - 소피야/ Ms. Dilyana Mileva/ 359-886-549 599/ mileva74@gmail.com
 - 플로브디브/ Ms. Radoslava Nikova/ 359 889 514 604/ quanyinplovdiv@gmail.com
- * 크로아티아: Ms. Dorotea Žic/ 385-98-378165/ tebudd@gmail.com
- * 체코
 - 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czech-center@spojenisbohem.cz
 - 프라하/ Mr. Nguyen Tuan Dung/ 420-608124709/ czech-center@spojenisbohem.cz
- * 핀란드
 - 헬싱키/ Ms. Astrid Murumagi/ 358-50-596-2315/ helsinkicenter@yahoo.com
 - 헬싱키/ Mr. Tri Dung Tran/ 358-40-7542586/ dungparatilis888@hotmail.com
- * 프랑스
 - 일사스/ 센터/ Mr. HENRION Arnaud/ 33-3-89-77 0607/ allmightylove@gmail.com
 - 몽펠리에/ Mr. Sylvestrone Thomas/ 33-4-67650093/ ocean-amour@wanadoo.fr
 - 파리/ 센터/ 33-1-4300-6282
 - 파리/ Mr. DAUBICHON Philippe/ 33-622 25 05 20/ PhDaubichon@gmail.com
- * 독일
 - 베를린/ Mrs. Anja Hable/ 49-179-7976653/ berlin-center@gmx.de
 - 뒤스부르크/ Ms. Tran, Thi Hoang Mai/ 49-2162-8907108/ mai_tran70@yahoo.de
 - 프라이부르크/ Ms. Elisabeth Mueller/ 49-7634-2566/ elmuearl@t-online.de
 - 함부르크/ Ms. Dan Li/ 49-40-81992117/ lidanli@gmx.de
 - 뮌헨/ Mr. Nguyen, Thanh Ha/ 49-89-353098/ ha_nguyensm@yahoo.de
- * 그리스
 - 아테네/ Mr. John Makris/ 30-210 8660784/ johnmackris@yahoo.co.uk
- * 헝가리
 -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budapestcenter@gmail.com
 - 부다페스트/ Mr. Gabor Soha/ 36-20-221-5040/ gabor.soha@gmail.com
 - 부다페스트/ Mrs. Aurelia Haprai/ 36-20-2400259/ doraur@gmail.com
- * 아이슬란드: Ms. Nguyen Thi Lien/ 354-5811962/ reykjavik_center@yahoo.com
- * 이탈리아
 - 페스카라/ Mrs. Bettina ADANK/ 39-333-617-8600/ bettina.adank@gmail.com
 - 페스카라/ Ms. Anna CALAMITA/ +39-85-6922 454/ Anna.calamita@yahoo.it
 - 볼로나/ Mrs. Nancy Dong Giacomozi/ 39-320-341-0380/ QuanYinBologna@gmail.com
- * 아일랜드
 - 더블린/ Mrs. Hsu, Hua-Chin/ 353-1-4865852/ smch_dublin@yahoo.co.uk
 - 더블린/ Ms. Kathleen Hogan/ 353-87-2259619/ dublinquanyin@gmail.com
- * 노르웨이
 - 오슬로/ Ms. Eva Telletesen/ 47 98832801/ evtel@irisurf.no
- * 폴란드
 - 슈체친/ Ms. Joanna Likierska/ 48-608 662 682/ quanyin_asia@interia.pl
 - 바르샤바/ Ms. Małgorzata Mitura/ 48-724 115 369/ malgorzata.mitura@gmail.com
- * 포르투갈
 - 리스본/ Mrs. Zenaide Alves Bonfim/ 351 212216877/ z.bonfim@yahoo.com.br
- * 루마니아
 - 부차레스트/ 센터/ 358-443338893/ bucharestqy@yahoo.com
- * 러시아
 - 모스크바/ Mr. Oleg Dmitriev/ 79165763796/ moscowcenter@mail.ru
- * 세르비아
 - 베오그라드/ Ms. Maja Mijatović/ 381642748820/ majazemun@yahoo.com

*** 슬로바키아**

- 질리나/ Mr. Roman Sulovec/ 421-903100216/ roman.sulovec@spojeniesbohom.sk

*** 슬로베니아**

- 첼레/ Mr. Damjan Kovačić/ 386-40236433/ qy4ever@yahoo.com
- 류블라나/ 센터/ 386-1-518 25 42/ quanyinslo@gmail.com
- 류블라나/ Mr. Benjamin Boršek/ 386-70834649/ forevershinelove@gmail.com
- 마리보/ Mr. Igor Gaber/ 386-41592120/ igorgaber@mail386.com

*** 스페인**

- 마드리드/ Mrs. Maria Jose Lobo Cardaba/ 34 675389788/ mjoselobo2004@yahoo.es
- 말라가/ Mr. Joaquin Jose Pretel Lopez/ 34-646843489/ joprelo@hotmail.com
- 발렌시야/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 발렌시야/ Mrs. Wenzin Zhu/ 34-963301778, 34-695953889/ valenciachinghai@yahoo.es
- 발렌시야/ Mr. Jose Luis Orduna Huertas/ 34-653941617/ joselorduna@gmail.com

*** 스웨덴**

- 일모/ Mrs. Helen Tielman/ 46-70-5719057/ qysouthsweden@gmail.com
- 스톡홀름/ Ms. Elizabeth Dabrowska Hagman/ 46-76-84 80 978/ elizabeth.dhagman@telia.com
- 유플라/ Ms. Youwei Wang/ 46-73 789 6019/ youwei@bredband.net

*** 스위스**

- 제네바/ Mrs. Eva Gyurova/ 33 633 60 11 91/ gyurovi@yahoo.com

***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 Mr. Kamlung Cheng/ 31-647838638/ kamlung27@hotmail.com
- 암스테르담/ Mr. Roy Mannaart/ 31-653388671/ r.mannaart@planet.nl

*** 영국 연방****§ 잉글랜드**

- 임스위치/ Mr. Zamir Elah/ 44-7843-352919/ zamir.light@gmail.com
- 런던/ 센터/ 44-2088-419866/ londonukcentre@googlemail.com
- 런던/ Mr. Andrzej Misiek/ 44-77-6848 9583/ misior23@yahoo.com
- 서리/ Ms. Leong Siew Yin/ 44-7760275088/ surrey.centre@yahoo.co.uk

◆ 오세아니아*** 호주**

- 애들레이드/ Ms. Hoa Thi Nguyen/ 61-433161065/ gohomeasap@yahoo.com
- 브리즈번/ Ms. Renata Halpin/ 61-412 775 678/ renatalhalpin@gmail.com
- 캔버라/ Mrs. Tieng thi Minh Tam/ 61-2-6100-6213/ tam.tieng@gmail.com
- 멜버른/ 센터/ melbsmch@aol.com
- 멜버른/ Ms. Jenny McCracken/ 61-431 587 830/ jam2arts@mac.com
- 멜버른/ Mr. Nguyen/ 61-422 113 775/ danhnguyen2475@yahoo.com.au
- 멜버른/ Ms. Wei Feng/ 61-414 839 533/ wifisdom@gmail.com
- 미드노스코스트/ Mr. Eino Laiasaar/ 61-2 6550 4455/ goldenagecenter@gmail.com
- 노던리버스/바이런베이/ Mr. and Mrs. Jonathan Swan/ 61-2 6624 7209/ byronbaycentre@gmail.com
- 퍼스/ Ms. Yennhi Nguyen/ 61-8 9375 1484/ yennhi_nguyen@yahoo.com
- 시드니/ Mr. Scott Divine/ 61-422 590 174/ happyblessings@gmail.com
- 시드니/ Ms. Adelaide San/ 61-417 202 585/ San.adelaide@gmail.com
- 태즈메이니아/ 센터/ 61-3-622 33118/ ray_jule@bigpond.net.au

*** 뉴질랜드**

- 오클랜드/ Mrs. Elisa, McLean/ 64-9-482 3244/ elisamac8@gmail.com
- 크라이스트처치/ Mrs. Juannan Wang/ 64-21-1624018/ shalina18@hotmail.com
- 해밀턴/ Mr. Dean Niki Powell/ 64-7-8566496/ hamiltoncp@yahoo.co.nz
- 넬슨/ Mr. Tim Guthrey/ 64-3-5391313/ timguthrey@gmail.com
- 웰링턴/ Mrs. Aryan Tavakkoli/ 64-4-5270063/ aryan@ihug.co.nz

수프릴 마스터 월레비전

이메일: Info@SupremeMasterTV.com

전화: 1-626-444-4385 / 팩스: 1-626-444-4386

http://www.SupremeMasterTV.com/kr

전세계 위성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설치 방법:

http://suprememastertv.com/satellite

포모사 타이베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2-8787-3935 / 팩스: 886-2-87870873

http://www.smchbooks.com

경서 팀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13 / 886-949-883778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뉴스그룹

이메일: lovenews@Godsdirectcontact.org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온라인 상점

천상의 상점: http://www.theCelestialShop.com (영어)

에덴 동산: http://www.EdenRules.com (중국어)

SM 보석 주식회사

이메일: smcj@mail.sm-cj.com

전화: 886-2-8791-0860 / 팩스: 886-2-8791-1216

http://www.sm-cj.com

러빙헛 인터내셔널

전화: 886-2-2239-4556

팩스: 886-2-2239-5210

이메일: Info@lovinghut.com

http://www.lovinghut.com/tw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akpt@yahoo.co.kr

전화: 042-543-9250 / 042-543-9258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chinghaiyd@naver.com

전화: 054-532-5821 / 팩스: 054-532-5822

(해피요기·SM 보석·천의·민세등·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수프림 마스터 TV는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위성 TV 채널로, 42개 이상의 자막과 60개 이상의 언어로 일주일에 7일, 하루 24시간 방송됩니다. 여러분 삶에 고귀함과 영성을 가져다주는 이상적인 텔레비전 채널입니다.

14개 위성으로 전세계에 방송됩니다!

아시아: ABS(75° E), ASIASAT 5(100.5° E), ASIASAT 3S(105.5° E),
INTELSAT 10(68.5° E) C-BAND

아프리카: INTELSAT 10(68.5° E) C-BAND,
INTELSAT 10(68.5° E) KU-BAND

북미: GALAXY 19(97° W)

남미: HISPASAT 1C(30° W), INTELSAT 805(55.5° W)

호주, 뉴질랜드: OPTUS D2(152° E)

중동, 북아프리카: EUROBIRD 2(25.5° E), HOTBIRD 6(13° E)

유럽: EUROBIRD 1(28.5° E), HOTBIRD 6(13° E), ASTRA 1(19.2° E)

영국, 아일랜드: SKY TV(CHANNEL 835)

건설적이고 감동을 주는 즐거운 프로그램을 시청하세요.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시청할 수 있습니다.

www.SupremeMasterTV.com/kr

이메일: Info@SupremeMasterTV.com

전화: 1-626-444-4385 / 팩스: 1-626-444-4386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서)

지은이/ 정하이 무상사

번역/ 한국 번역 팀

교정/ 한국 번역 팀

펴낸이/ 서영기

펴낸곳/ SM출판사

주소/ 경북 상주시 모서면 호음리 산 64-1번지

전화/ 042)543-9250, 042)543-9258

이메일/ chinghaikpt@yahoo.co.kr

웹사이트/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출판 신고/ 제511-2006-000002호 2006년 3월 7일

초판 1쇄/ 2003년 9월 15일

초판 2쇄/ 2004년 9월 20일

초판 3쇄/ 2005년 10월 7일

재판 1쇄/ 2007년 8월 17일

재판 2쇄/ 2008년 5월 8일

삼판 1쇄/ 2010년 7월 8일

Copyright©2003~2010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이 책의 판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출판사의 사전 허락을 얻으면 이 출판물을 복제에도 좋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과거 구도의 힘든 과정에서 완전히 깨달은 스승을 만나는 것과 진정한 법문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모든 참스승들에 의해 전해 내려온 이 법문은 우리 내면에 있는 지혜를 일깨워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법문을 수행하여 대단히 큰 이로움을 얻은 우리는, 우리와 같이 일세해탈—世解脫을 갈망하는 많은 구도자들을 돋고자 스승이신 칭하이 무상사(The Supreme Master Ching Hai)가 세계 각지에서 강연하신 내용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책으로 여러분은 생명, 삶과 죽음, 수행과 진리 등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